

# 문화로 즐거다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례집



03 발간사

04 I. 전통의 밑바탕에

- 06 학춤 덕분에 청년이 됐어요 / 부산 동래문화원
- 10 다시 찾은 삶의 리듬 속으로 / 대구 서구문화원
- 16 어르신들께도 꿈이 있다 / 강원 속초문화원
- 20 우리 소리에 돌아보세요! / 충남 공주문화원
- 26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걸쌘나게 돌아보세요 / 전남 진도문화원
- 30 새로운 현재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 / 경북 안동문화원



34 II. 현대가 스며들어

- 36 또 하나의 동네를 마음에 품다 / 서울 동대문문화원
- 42 모두가 주연이고 모두가 빛나는 자리 / 인천 부평문화원
- 48 알로하, 벵글이 뛰는 소리가 보여요 / 광주 남구문화원
- 54 우리에게 악기는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입니다 / 대전 중구문화원
- 60 쿵하면 짹, 늦깎이는 있어도 늦은 나이는 없다 / 경기 의정부문화원
- 66 쿵, 짹, 쿵, 짹. 내 몸이 박자가 되는 시간 / 전북 전주문화원
- 72 무대 위에서 꽃피우는 제2막 인생 / 경남 거창문화원



80 III. 문화로 물들었다

- 82 손끝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인생 / 울산 남구문화원
- 88 우리가 명품이다! / 충북 청원문화원
- 94 생활도구를 통해 제주도 서민의 삶을 기록하는 이야기 / 제주문화원



98 부록

- 10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소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지금의 추세라면 고령사회로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는 '노년층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며, 특히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문화 영역에서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실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05년부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0여개 문화프로그램이 전국의 지방문화원과 문화시설의 참여로 내실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환경변화와 노년층의 새로운 욕구에 맞춰 지원체계 및 운영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 대상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르신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수혜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이제는 자발적 문화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도 단순 여가 활용을 위해 접근했다가,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활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며 그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2015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례집에 실린 16개의 프로그램은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사업의 일부입니다. 비단 사례집에 실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훌륭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사례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신, 전국의 지방문화원 및 문화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 전통의 밑바탕에

| 부산 동래문화원

| 대구 서구문화원

| 강원 속초문화원

! | 충남 공주문화원

| 전남 진도문화원

| 경북 안동문화원

가

## 부산 동래 문화원

얼썩! 은빛 날개를 펼쳐라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

옛날 옛적 부산 동래의 한 마을잔치에 이름난 춤꾼이 나타났다. 그 춤꾼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풍물놀이 장단에 맞추어 덧뵈기춤을 멋들어지게 추었는데, 춤꾼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학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다. 검정 갓은 학의 머리 같고 흰 도포는 학의 날개 같았으며, 우아한 춤사위는 은빛 날개를 너울거리며 날아오르는 학의 자태를 연상시켰다고. 잔치에 모인 이들이 하나같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 바로 학춤이란 말이 생겨났다. 그 심상치 않은 유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학춤은 조금 특별한 춤이다. 우리 민속무의 일종이라고는 하지만 그 범주를 훌쩍 벗어나 있다. 대부분의 민속무가 종교적 의식에서 출발해 어떤 초인적 힘에 기원하거나 해학과 풍자를 내세워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내는 내용이 바탕이 된 데 비해 학춤은 오로지 춤을 위한 춤, 춤 자체만이 목적인 춤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작은 극히 소박하지만, 상민들이 아니라 양반, 선비들에 의해 추어진 춤인 만큼 기품과 격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춤의 본원이라 할 수 있는 부산 동래는 예부터 총절의 고장,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 이곳에서 학의 고고한 이미지를 본뜬 춤이 발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춤에 대한 남다른 사명을 지닌 부산시는 1972년 동래학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에 발맞춰 동래문화원도 1999년 개원과 함께 학춤의 전승, 보전에 지속적인 열과 성을 쏟아왔다. 학춤교실을 운영한 지도 이미 16년째인 셈이다.

그러다 지난 5월부터 어르신학춤교실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다. 1주일에 한 번 세 시간씩 강좌는 진행된다. 뒤늦게 춤에 빠진 어르신들의 열의는 실로 대단했다. 지난 8월 초, 더위가 한창일 무렵에도 일부러 에어컨을 끈 연습실은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강의를 시작되자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다. 스트레칭 등의 기초운동을 통해 몸을 꼼꼼히 풀고 강사의 구령에 따라 동작을 하나 둘씩 맞춰나갔다. 발 디딤을 크



게 배긴 뒤에 뒷발을 길게 뻗고, 뒷무릎이 땅에 닿을 듯한 자세로 굴신(屈身)하는 어르신들의 무태(舞態)는 제법 이채로웠다.

“연세가 있으니 거동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두 열심히 하세요.”

강좌 시작 한 두 시간 전에 나와 진도가 앞선 우등생에게 ‘특별과외’를 받거나 강좌가 끝난 후 남아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는 예사라고, 어르신학춤교실 박지영 선생님은 귀땀한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과정으로 개설된 이번 어르신학춤교실은 동래학춤을 보다 널리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학춤을 배우고자 걸음한 수강생이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기존 20여 명에 불과하던 수강생은 현재 6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어르신학춤교실은 60대 여성의 큰 관심을 얻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몰리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인원이 늘어난 것.

“60대 주부 한 분은 본인이 해 보고 나서는 좋다며 집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춤은 여자가 하는 거다’ 하면서 점잔을 빼시다가는 한두 번 와 보시고는 그 남편 분도 완전히 빠지게 되셨죠. 사실 학춤은 원래 남성들이 추던 춤이기도 하고요.”

불과 2~3개월 만에 학춤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일등 공신은 뭐니 뭐니 해도 탁월한 운동 효과다. 학춤이 이렇게 좋은 운동인 줄 몰랐다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연령층 고려하다 보니 춤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이어 기초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학춤 동작 중 기마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에너지를 만들어요. 다리 근육을 눌러준 달까요.”

학춤 덕분에 ‘청년’이 된 어르신이 한 둘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어르신학춤교실의 모범생 중 한 명인 김선희(62) 어르신은 지난해 12월 주변의 권유로 처음 학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좋아졌다고 한다.

“허리가 안 좋아 늘 고생했어요. 그런데 학춤을 배우면서 자세가 바르게 되고, 허리힘이 생기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활기가 생기고 생활패턴도 바뀌었어요. 더 빨리 접하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예요. 더 빨리 학춤을 알았다면 내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내 자신이 달라졌을지……. 여하간 지금 참 좋고 행복합니다. 날개를 단 것만 같아요.”

학춤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맺게 된 관계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학춤을 계기로 동년배들과 어울리다보면, 자연히 대화가 늘고 웃음이 늘게 될밖에. 교실에서 만난 김영주(60) 어르신은,

“학춤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동년배랑 모여 이런 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젊어졌다”

며 웃었다. 아울러 박지영 강사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에 비해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저녁때가 되면 완전히 기운을 잃고, 손자 손녀가 와도 아무것도 못 해줘 아쉽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보면 우울증을 앓게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수강자 중 한 분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학춤을 만나면서 그 마음의 병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해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아주 기쁜 일이죠.”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학춤을 접하면서, 그 속에서 활력소를 찾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개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이런 일이 훨씬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동래문화원에서 어르신학춤교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정미 선생님도 말을 보탠다.

하지만 학춤은 결코 만만한 춤은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취하는 동작을 본다면 시작도 전에 지레 겁을 먹기 일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춤은 동작, 박자 등이 여느 전통무와 전혀 다르다고 한다. 모든 것이 생소하기에 익히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지영 강사는 말했다.

“수강자들이 ‘갈수록 어렵네요’라고 이야기를 곧잘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렵다고 느끼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학춤을 추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이내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설명이다. 1년 남짓 학춤을 배웠다는 한 수강자는,

“풍물만 해도 그래요. 장구나 징 같은 것을 조금 두드리다 보면 흥이 나고, 실력도 퍼뜩 느는 것 같죠. 근데 이 학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매력이랄까, 그런 것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흥뻑 빠지게 돼요.”

어르신 학춤 고수 중 몇 분은 학춤의 진짜 멋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몇 년 이상 꾸준히 학춤을 추다 이번 어르신학춤교실에 합류한 이들은 ‘마당에서 하는 춤’이라는 점이 학춤의 진짜 묘미라고 입을 모은다. 무슨 의미일까. 즉, 학춤은 꾸밈이나 의도적인 색채가 없이 소박하고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반영한 춤이라는 것이 아닐까.

“무대 위에서처럼 정돈된 자세로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저기 저 숲의 나무처럼, 풀처럼 하는 것을 권해요. 꾸미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런 자기 자신의 편안한 모습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 자체가 쉽고도 어려운 경지이리라.

그러나 학춤의 춤사위를 가만히 보면 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학춤은 기본적으로 일반 민속무와 같이 일정한 순서로 짜여 있지 않고, 몇 가지 도식적인 춤사위 외에는 대부분 즉흥적인 춤사위의 짜임새를 갖고 있다. 최소한의 원칙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공간, 시간, 감정에 따라 순간적으로 춤사위를 만들어 내면서 행하는 자유분방한 춤인 것이다. 춤꾼이 각기 자기 멋대로 덧뵈기춤을 추다가, 몇 가지 정해진 춤사위를 행할 때만 같은 동작을 행하는 형태다. 학춤의 바탕이 되는 덧뵈기춤 자체도 무형식의 형식을 원리로 한다. 경상도 지방의 들놀이음이나 옹골대놀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춤인 덧뵈기춤은 영감에 의해 순간적으로 춤사위를 창출하는 형식을 띤다. 전문가들 역시 동래학춤의 가치를 바로 이 같은 즉흥성에서 찾는데,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가 바로 학춤의 예술적 극치라고 평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동래문화원 측은 동래학춤이 더욱 널리 보급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조처럼.

“타고난 자기만의 신명, 끼를 가지고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춤추다 보면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이런 게 바로 춤의 진짜 힘이지요.”

얼마 후 어르신학춤교실 수강자들은 그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공식적인 지역 축제 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10월 초 3일간 치러질 동래읍성 축제와 12월 초 있을 동래문화원 주최 어울 한마당 등의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동래문화원과 교류를 맺은 전북 고창문화원에서 준비하는 모양성축제에서도 이미 러브콜을 받은 온 상태다. 학춤이 동래의 상징인 만큼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번에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무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니, 그 기량 정도에 따라 춤꾼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래문화원 측도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동래문화원 노익규 사무국장은, “동래학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쉽게 배워서 쉽게 추기엔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요. 괜히 어설피게 흉내 냈다가는 민망해지기 십상이니까요.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요(웃음). 그런 면에서 5개월간 닦은 실력으로 무대에 선다는 것이 사실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대에 선다’는 과제를 갖고, 어르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10월에 강좌가 끝나면 실력이 우수한 분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볼 생각이예요.”

아울러 동래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상징이자 자랑인 동래학춤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한다. “동래학춤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는 어르신학춤교실 담당자 성정미 선생님의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어르신이 엄지를 치켜들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 대구 서구 문화원

날뫼북춤 어른신 풍물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여기, 힘찬 소리가 들린다. 이른바 '왕선생님'으로 불리는 날뫼북춤 예능보유자 윤종근(54)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장구 연주가 시작된다. 연습실을 빼곡하게 채운 어른들이 장구채를 쥐고 휘황찬란하게 북편을 오가며 소리를 찾아간다.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는 장구의 장단에 여기저기 웃음꽃이 핀다. 이 소리는 바로, 날뫼북춤'을 배우는 어른들이 마음에 움츠리고 있던 리듬을 깨우는 소리이다.

산에도 다녀보고,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도 쳐보았지만 사는 낙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았다. 대구의 다른 도심에 비해 시끌벅적하진 않지만 조용히 제 모습을 지켜온 서구에는 날뫼북춤으로 다시 인생을 펴내는 사람들이 있다. 재미삼아 시작해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동안 배우던 약속은 자발적으

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로 일주일에 두 번이 되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일, 어쩌면 이것도 사는 즐거움이라.

날외복춤 어르신 풍물단에는 이제 막 발을 내딛은 분도 있고, 햇수로 몇 년째가 되신 분들도 있다.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지만 땀을 흘린다. 그것만으로 우리 것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도 한다. 연습실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이 장단에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 지금은 대구 서구 날외복춤 어르신 풍물단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고유의 것을 가꿈은 있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한동안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여가 시간이라는 건 생각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우리만의 것이 있고, 날외복춤도 그 중에 하나였다. 전수자도 얼마 없는데다가, 젊은 사람들은 더 재밌고 즐거운 것을 찾아 떠났다.

그러던 차에 대구 서구의 어르신들이 처음 복채를 쥐고, 땀을 흘리며 춤사위를 펼치면서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그저 새로운 여가 생활을 즐겨보고자 찾았던 어르신들이,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케 자긍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에 단 하나 뿐인 날외복춤, 살아온 터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나이에 복을 메고 시내를 돌며 춤을 추는 건 우리들뿐이지.”

자연스럽게 생긴 자부심이 잃어가던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가락, 대한민국의 소리를 우리가 안 하고 누가 하겠냐’며 마음 깊숙이 새긴 자긍심은 2014 전국날외복대회 금상(일반부), 전국실버대회 금상 등을 수상하며 값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내 두 번째 인생이 시작 된 거지.”

연습을 마친 어르신은 땀을 닦으면서도 지금 흘린 땀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였다. 가슴 떨리는 일이 시작될 때, 자꾸 방 안에서 움츠리고 소외되어가던 자신의 존재감을 대구 서구의 고유문화와 함께 되찾는 것이었다.

‘왕선생님’의 지도 아래 배운 날외복춤은 연습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던 재능기부와 봉사가 시작되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만나게 된 요양병원의 또 다른 어르신들은, 손뼉 치는 일마저 힘겨울 정도로 쇠약하였다. 어르신을 마주하는 날외복춤 풍물단의 어르신들은 감회가 새로웠다고 한다. 함께 나란한 자리에서 흥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는 시간은 날외복춤이 만들어준 작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돌아와 건강을 소망했다. 그래야 아프지 않고 다시 복을 뭍 수 있고, 복채를 힘차게 휘두르며 리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을 보살피고 부모를 봉양하느라 잃었던 자신들의 속도를 바로 날외복춤으로 찾았다는 어르신들은, 요양원 뿐만 아니라 대구 곳곳을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대구의 젊은이들이 가득한 동성로에서 ‘컬러풀페스티벌’ 예선·본선 무대에 섰고 ‘대한민국대한명인전’ 개막식, ‘어르신문화축제’<sup>2)</sup> 식전공연에도 올랐다.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기도 했고, 합천의 원자폭탄피해마을에서 위문공연도 하였다. 한 번의 구슬땀이 누군가에게 값진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힘찬 북소리로 춤을 추는 곳곳마다 어르신들이 흘린 땀은 그렇게 또 누군가의 즐거움이 되었고, 누군가가 흘리지 못한 땀이기도 했다.

2 2014어르신문화대축제 ‘나이 없는 날’

“건강해야지. 그래야 계속 하지!”

늦게 배운 것이 후회스럽다는 한 어르신들의 힘찬 목소리에서 다시금 살아 있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나눌수록 커지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대구 구석구석에 녹아들고 있었다.

서구는 과거에 대구 중심지에서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배움지였다. 지금의 비산동이 날뫼마을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외곽이었다. 아직도 개발이 많이 된 곳이 아니다. 지금은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곳, 옛날 골목처럼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달서구나 수성구로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키는 어르신들은 몇 억 광년을 건너온 별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날뫼복춤을 배우는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풍물을 몸소 익히고, 화려하진 않지만 굳건해 보이는 춤사위를 펼치며 잊히는 것을 지키는 시간은 드문드문 뜨는 별, 땀을 흘릴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이다. 33명이 만들어내는 별자리가 어두워져가던 대구 서구의 불을 밝히는 순간이다. 이 별자리에 동참하려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덕분에 대구 서구문화원엔 반가운 발걸음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의미 있는 여가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동네가 다시 북소리에 깨어나는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던 어르신도, 무릎 때문에 좋아하던 산을 등진 어르신도, 하나 같이 말한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다고.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어르신도 계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점을 자랑하며 새로운 단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건강해진 마을이 다시 숨 쉬는 서구에는 구슬땀으로 엮어가는 삶의 가락이 있고 춤사위가 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기약은 없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구채와 북채를 쥐고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이다. 소소한 행복을 알아가고, 자생적으로 더 단단해져갈 풍물단을 꿈꾼다. 그 덕분에 날뫼복춤을 배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구 고유의 문화가 서구 주민들의 힘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훌륭한 가치가 될 것이다. 적어도 날뫼복춤을 즐기고 관람하는 곳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희망이 없던 어르신들도 공평하게 흥을 돋우고 삶의 리듬을 되찾을 것이다. 배우는 과정에서 때론 실수를 하지만, 윤종곤 선생님의 다정하면서도 호탕한 가



르침은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이미 보내버린 세월에 밀려, '이 나이에 무슨' 으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해나가는 즐거움도 더해진다. 그래서 고요했던 대구 서구가 어르신들의 장단에 떠들썩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날뒀던 북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은 또 다른 어르신을 불러오면서 서구의 많은 별을 띄울 것이다.

늘 자식들을 키우느라 조연이었던 어르신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북채를 꼭 쥐고 북소리 하나만으로 밀고 가는 리듬에 몸을 맡긴다. 흘린 땀과 해냈다는 기분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대구 서구 날뒀북춤 어르신 풍물단, 아직 끝나지 않은 춤사위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시간이다.







강원  
속초  
문화원

실향민문화 지킴이 '돈돌라리아'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전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후 많은 실향민이 생겼다. 1.4후퇴 당시 국군을 따라 남하한 함경도 일대의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갈 길이 없어지자 휴전선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했다.

특히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청호동 주변으로 군락이 형성되었다. 그것이 모태가 되어 실향민들은 동명동 등 속초시 곳곳에 살고 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고 변변치 않게 바닷가에, 모래사장 위에 세워진 집들. 그것이 그 당시 실향민들의 터전이었다. 잠시만 머무를 줄 알고 임시 거처처럼 살던 곳.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실향민이 되었다.

속초엔 함경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함경도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다. 예를 들면, 북청사자놀음 기·예능 보유자들이 주로 서울에 있어서 서울이 소재지로 소개되곤 하지만, 실은 함경도에서 속초로 속초에서 전역으로 뻗어간 문화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함경도가 뿌리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돈돌라리아'이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의 부녀자들이 바닷가나 강변 또는 산에 모여서 춤을 추고 놀면서 부르던 춤과 노래를 말한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으로 분포했던 민요이다.



한식 다음날 각 마을의 부녀자들이 남대천 강가나 모래산에 모여 달래를 캐며 지내다가, 오후가 되면 춤을 추며 노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놀이를 '달래터놀이'라고 하였고, 여기에서 추는 춤을 '달래춤'이라고 하였다. 이 놀이에서 부르는 노래는 돈돌라리를 비롯하여 '이 강산 서산에', '도레미쏘', '삼천리노래', '거스러미노래', '라리라 라따', '전갑성타령', '미나리꽃', '양류나청산', '시집 안 가겠다고', '리리힐리리', '종구 종소'를 비롯하여 20여 가지이다. 이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돈돌라리다. 이러한 연유로 돈돌라리는 차춤 달래터놀이와 달래춤을 가르키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돈돌라리가 이러한 여러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말로 굳어져 있다.'

우린 돈돌라리라는 노래와 춤을 사실 잘 알지 못한다. 돈돌라리를 전문적으로 복원하고 알리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무형문화보다 비교적 덜 소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필자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생소한 돈돌라리를 공부하고 직접 보고 들으며 알게 되었다.

돈돌날이는 '돈돌라리'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돈돌'은 돌고 돈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고 돈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의미로써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밖에 돈돌을 통틀로 이해하여 어둠이 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돈돌라리는 특유의 경쾌함이 있다. 인터뷰를 한 많은 분들이 특유의 경쾌하고 빠른 후렴구가 인상에 남는다고 한다. "리라 리라 리라 리랄라리요"나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등의 가사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녀자들의 한과 실향민들의 한을 경쾌한 후렴구를 부르며 풀어낸 것이다.

하지만 돈돌라리의 가사는 경쾌함보다는 한이 서려 있는 내용이다. 실제의 가사는 "편지 한 장 없는 오빠 너무 허나. 리라 리라 리라 리라 리랄라리요. 한 맺힌 이 마음을 그 어찌 누가 알겠소. 내 고향 아늑하니 간절하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부모 형제 두 손 잡고 살고 싶소. 리라 리라 리라 리라 리랄라리요."처럼 실향민들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서려 있다. 그래서인지 돈돌라리의 복원과 전파를 하는 선생님은 위의 노래 예선 의도적으로 빠르기를 대폭 느리게 해 실향민들의 한을 부각하고자 했다. 가사에 담긴 실향민들의 슬픔을 더 극대화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사가 신명 난다기보다는 후렴구가 신나는 것이다. 실제 지금 돈돌라리를 공연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후렴이 서로를 단합시킨다고 하셨다. 어찌면 실향민들이 모여 이처럼 함께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은, 서로 문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고향 잃은 슬픔을 돈돌라리라는 노래로 승화시킨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실향민들의 슬픔을 느꼈는지 많은 어르신들은 돈돌라리의 노랫말을 처음 접하곤 눈물을 흘리시곤 한다.

속초는 외지인들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이다. 돈돌라리를 계승하고 전파하시는 어르신들은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다. 속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속초의 특징 중 하나는 텃세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지방이 외부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경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외부인들이 그 고장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속초는 이러한 원주민들의 텃세가 없다. 외지인들이 새로 왔을 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하신다. 속초인들의 품성이 포용력이 있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참고



외지인들이 금세 적응하고 한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이 실향민들이 속초라는 고장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아닐까 생각한다. 그 당시 많은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고 새로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면 속초는 그들을 가장 잘 포용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청호동이나 동명동 등의 속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돈돌리리는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중심으로 실향민 1세대들에 의해 마을잔치나, 체육대회 등 행사가 있을 때 불리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많은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며 현재 속초 지역에서의 명맥은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비교적 생소한 돈돌리리가 계승되고 전파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2011년, 속초문화원에서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북청사자놀음으로 참여할 때 돈돌리리를 함께 공연에 넣는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과 돈돌리리 전승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문화를 어른들이 직접 의지로 해냈던 일이다.

현재 2011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한 지역 어르신(할머니) 24명 중 현재 15명이 활동가반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새로 기초반 20명을 모집하여 교육 중이다.

속초문화원의 돈돌리리 팀은 돈돌리리의 전파에도 신경 쓰지만 복원 또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복원 중인 함경도 민요는 돈돌리리를 비롯하여 '전갑성타령', '미나리꽃', '라리라라따' 등 함경도 지역 민요와 율동을 함께 연습 중이며, 공연되는 돈돌리리는 신천무용단 김민희 대표가 돈돌리리 보존회와 함께 공연활동을 하며 배운 공연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생존해 계시는 실향민 1세대 분들을 찾아 가사 녹취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도 속초에서 불리는 가사와 공연단이 공연 중인 가사와의 차이점, 속초에 와서 변형된 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 한다.

어려움이 없던 일이 아니었다. 처음 돈돌리리 공연을 준비할 땐 단원에게 어느 도움도 없었다. 공연을 해도 실향민이 많이 사라진 속초에서 이제는 돈돌리리를 알아보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았다. 어찌다 한두 분이 보시고 좋다고 하실 때도 있고, 돈돌리리를 모르는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의상 또한 어르신들이 한복을



직접 뜯어서 해 입으셨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습과 공연을 하며 지내셨다. 마침내 돈돌라리를 정착시키고 다시 꺼내기 위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아해준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 가 공연을 하기도 하셨다.<sup>2</sup>

하지만 역시 돈돌라리를 공연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건 돈돌라리를 직접 부르고 듣던 실향민 1, 2세대 분들이라 말씀하신다. 실향민 1, 2, 3세대 분들이 가장 먼저 반겨준다고 한다. 1세대 2세대들은 돈돌라리를 잘 알기에 함께 어울려 함께 해주신다. 공연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실향민 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하신다. 또한 잠시나마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고 한다. 그래서 실향민 분들이 격려해주실 때 정말로 큰 힘이 난다고 한다.

실제 실향 1세대 분들에게 돈돌라리는 눈물이 나는 노래이다. 그들에게 돈돌라리는 노래 이상의 큰 의미이다. 경쾌한 노래이지만 실제 1세대 분들이 계시면 공연을 흥겹게만 못한다고 하신다.

어르신들께도 꿈이 있다.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다. 실향민 1세대 분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그분들 모아서 잔치를 열어 드리고 싶다고. 전국에서 모이신 실향민들 모아 놓고 공연하고 싶다고.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신다.

마지막으로 돈돌라리의 도저히 잊히지 않는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더불어 꿈꾼다. 함경도의 어르신들과 속초의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돈돌라리를 부르는 꿈 말이다.

“가자마자 가자마자 어서 가자 내 고향으로, 부모 형제 두 손 잡고 살고 싶소.”

<sup>2</sup> 2014어르신문화대축제 '나이 없는 날'

## 충남 공주 문화원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 발두렁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아침 일찍 공주에 도착했다. 공주를 대표하는 민속종합예술단인 <논두렁발두렁>의 취재를 위해서다. 공주터미널에서 어르신 한 분께 여쭙었다.

“의당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여기서 타는 게 맞나요?”

“맞으니깐 같이 가유.”

어르신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의당면사무소 앞에서 내렸다. 개울을 따라서 나직하게 새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동네, 공주 의당이다. <논두렁발두렁> 연습실은 이곳의 유명 중식당인 청운식당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겨우 찾았을 만큼 조그만 연습실이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공주의 대표 민속종합예술단인 <논두렁발두렁>의 어르신들께서 맞아주신다.

“아이고, 기자님. 너무 일찍 오셨네.”

가장 먼저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은 <논두렁발두렁>에서 하는 민속 공연의 연출을 맡고 계신 이결재(58) 선생님이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일단 회원들이 오는 중이고 다 도착하면 같이 갑시다.”

“네? 오늘 공연을 하시나 봐요?”

옆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커다란 장구 끈을 조이며 대신 대답을 해주신다.

“이 근처 요양원에서 공주아리랑 공연이 있어요. 날을 아주 잘 잡았네요.”

“공연을 볼 수 있다니 기대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연습실에는 매일 나오시는 건가요?”

“요즘엔 저기 계신 회원들과 민속 공연을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 나와요.”

“선생님께 <논두렁발두렁>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개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에 멋쩍어하시며 장구를 내려놓은 어르신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고는 말씀하신다.



“이걸재 선생님이 말씀을 더 잘 해주실 텐데…… 음, 저희는 <논두렁밭두렁>이구요. 충남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방의 다양한 춤과 소리를 공연으로 만드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이에요. 평소에는 다들 생업이 있어서 한가할 때 주로 모여요.”

“공연에만 모이시는 건가요?”

“요즘에는 바빠서 이곳 회원들과 거의 매일 한 식구처럼 지내요. 평소에는 각자 댁에서 꾸리고 있는 논이랑 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공연 임박하면 이렇게 쉼병거지도 쓰고 전통 복장도 갖추고 모여서 한바탕 노는 거죠.”

“평소에 일을 하다가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도 짝 풀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연하는 게 생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춤과 소리는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심심치 않게 해오던 것이고, 누구든 옛사람이면 전통문화를 후대에 알리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시골 어르신들이 하는 공연이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실제로 <논두렁밭두렁>은 국립극장이나 중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데에 한 몫 했지요.”

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공연 때 쓸 풍물도구를 함께 조심히 옮기며 연습실 주변을 둘러본다. 사람 키만 한 허수아비,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 형상을 한 종이인형도 보인다. 모두들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이걸재 선생님이 밖에서 돌아오시더니 말씀을 해주신다.

“저것은 넋전이라고 해요. 죽은 자의 넋을 받는 인형인데 굿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동학을 소재로 한 <녹두장군 오셨네>를 공연할 때 사용을 하던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오신 것 같으니 함께 버스로 갑시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고서 질문 적힌 수첩을 펼쳤다. 창밖의 풍경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온다.

맞은편에 앉은 어르신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탈하게 웃고 계신다. 공연을 할 <논두렁밭두렁> 회원들끼리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왈자지껄하게 얘기를 하느라 어느 누구 한 분을 붙들고 질문을 하는 게 멍쩍다. 슬그머니 그 틈에 끼어보려는 찰나에 어르신 한 분이 마이크를 들고서 나를 소개해준다. 그리고는 오늘 한 번 신나게 공연을 하자며 회원들을 다독이고 자리에 앉으신다. 가까운 데 앉은 어르신께서 멀리서 와 고생한 다며 과자와 음료수를 챙겨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바쁘시네요? 오늘 어떤 공연하러 가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민속 공연하러 가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 공연이 있어서 함께 볼 수 있고 너무 영광입니다. <논두렁밭두렁>이 언제 생겼는지 궁금해요.”

“2005년도에 생겼죠. 올해로 만 10년이 넘었어요. 만들자마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맹맹맹 실버문화학교>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창립 회원들 일곱 명이 사부작사부작 활동을 했지요. 지금의 이걸재 선생님, 회장님, 부회장님이 창립 회원이에요. 그때 일곱 명 가운데 네 명이 지금도 활동을 해요.”

공연할 인원과 장비를 부지런히 챙기시던 이걸재 선생님께서 옆자리에 앉으신다.

“선생님은 <논두렁밭두렁>팀의 풍물 지도 및 연출을 맡고 계시잖아요.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농촌의 어른들하고 문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제 좀 놀만 한데 돌아가시고……. 한 사오 년 하면 기량이 쑥쑥 올라갈 텐데 말예요. 우리의 판을 항상 김선태라는 어르신이 여셨는데 그분이 엉덩이춤을 그렇게 잘 춰요. 자기 엉덩이를 때려가며 하는 옛날 춤인데 그걸 아직도 우리 회원들이 아무도 못 해요. 그분만이 가진 장기인데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논두렁발두렁〉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르신이 자부심이 한껏 넘치는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아주 많이 했어요! 일본에 두 번 갔고 중국에 한 번 갔고 올해도 초대받았어요. 국립극장에서 초청 공연을 했고요. 공주에서 활동하는 공연단 중에 가장 잘 하는 한 팀을 초청하는데 저희가 당당히 뽑혀서 갔죠.”

크고 작은 산등성이가 보이는 길을 따라서 버스는 공연이 있을 병원을 향해 달렸다.

“자, 오늘 병원으로 갑니다. 가시는 데가 몸이 편찮은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니깐 날이 조금 덥더라도 힘껏 공연을 하고 옵시다. 자기가 공연을 안 할 때는 뭐 할까요? 객석으로 내려가서 어르신들과 춤추며 노세요. 마지막에 풍물놀이 할 때는 무대 위에 여러분들이 없어도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신나게 어울리세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없어요!”

모두들 인자한 미소로 〈논두렁발두렁〉의 구호를 외친다.

“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버스에서 내린 다음 짐을 옮기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공연팀과 함께 움직였다. 공연 시작하고 나서 객석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았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던 어르신 관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주아리랑을 함께 따라 불렀다. 〈논두렁발두렁〉의 회원들 한분 한분이 자기 차례가 될 때마다 관객에게 공주아리랑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었고 무대에서 내려가 흥을 돋우며 함께 춤을 추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희도 신이 나요. 공주에는 아리랑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주 자진 아리랑, 공주 긴 아리랑, 그리고 공주 엮음 아리랑이 있지요. 다른 지역은 아리랑을 아리랑하고 부르는데 공주는

‘아이롱’이라고 해요. 어떨 땐 ‘아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재밌쥬? 근데 사람들이 이게 촌스럽다고 해서 안 불렀어요. 없어졌는데 저희 〈논두렁발두렁〉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니 한 번 따라서 불러볼까요?”

특유의 말씀씨로 객석의 호응을 이끌 어낸 〈논두렁발두렁〉은 한눈에도 다양한 공연을 한 베테랑 팀으로 보였다. 공주의 민속과 민요의 조사·보급에 힘써 온 공주아리랑 연구회장인 이길재 선생님을 필두로 다른 회원들 모두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무엇보다 중요무형문화재이면서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아리랑을 부를 땐 마치 수수한 시골 어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는 이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강당에 모인 수많은 공주 어르신들께서 한 목소리로 “아리 아롱 쓰리 쓰롱 아리리요”하고 공주 자진 아리랑을 부른다. 마치 서로가 얼싸안고 공주아리랑을 부르며 아라리 고개를 넘어가는 정겨운 모습 같다. <논두렁밭두렁> 회원들은 공주아리랑 말고도 창작곡인 ‘엄니아리랑’, ‘어울렁더울렁’ 등 준비했던 곡을 열창했다.

두 시간 여의 공연을 마치고서 <논두렁밭두렁> 회원들과 다시 버스에 올랐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거장마다 버스가 섰고 한 분씩 댁으로 돌아갈 때마다 다시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께 여쭙었다.

“어머님, 오늘 열심히 공연하셔서 피곤하시죠? 공연 너무 잘 봤고 엄니아리랑 부르실 때 가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공연 때 녹음한 엄니아리랑을 들었다. 공주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얼굴이 크고 작은 아라리 고개가 되어 창밖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 전남 진도 문화원

아리랑걸쌈패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9

‘그림과 노래와 민속이 살아 숨 쉬는 보배섬 진도’에서 ‘아리랑걸쌈패’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된 주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이다.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을 찾아가 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 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소외된 곳을 찾아 정을 나누고 삶의 흥을 돋운다.

딩! 북을 치면, 더꽁! 몸이 가락을 받아 움직이고, 춤사위 손끝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따다 가슴에 안는다. 노랫가락은 끊어지는가 하면 간지 녹을 만나면 끝이 이어진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걸쌈나게 노는 것이다. 이곳에서 ‘걸쌈나다’는 말은 ‘재미있게 신들린 듯 노는 것’을 이른다. 그러기에 나눔 봉사단의 이름도 ‘아리랑걸쌈패’다.

어르신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사정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받아들이고 추우나 더우나 항상 진도 곳곳을 누비는 아리랑걸쌈패의 중심에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40호이자 조도닻배노래 보유자인 조오환(67) 선생과 강강술래 전수자인 고미경(40) 선생이 있다.

일찍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특산물 홍보는 물론 장애 나오신 분들께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문화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진도읍장과 십일시장에서 장터굿을 벌이는 등 민속 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었다.

이들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장터에서 변변히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농악, 뺑파전, 흥타령, 신판 춘향전, 토속민요, 사철가, 진도아리랑, 진도북춤, 흥부와 놀부, 강강술래 등으로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어울림 마당을 펼쳤다. 그때 장터 사람들은 ‘시끄럽다, 장사가 안 된다’며 불평을 쏟기도 했지만 정작 오일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공연 덕분에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가 있었다. 노래를 부르면 함께 따라 부르고, 북을 치면 어깨를 들썩이고, 춤을 추면 같이 따라 추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그 뒤에 이러한 여세를 몰아 조오환 선생은 민속 문화 공연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나눔 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르침을 받은 수강생들과 함께 민속문화예술단을 만들게 되었다. 맨 처음에는 그야말로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진도실버예술단’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너나없이 민속 문화를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 이름뿐만 아니라 단체 형태도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었다.

이곳에서는 소외 계층 사람들 10여 명을 고용하여 엿을 만드는 부대사업도 하고 있다. 작은 일자리이지만 나눔



봉사를 함께 하며, 그 수익으로 모자라는 봉사 활동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삶과 놀이를 한 가지로 하는 셈이다. 어르신 문화 나눔 봉사 활동은 아리랑걸쌘패가 직접 소외 계층을 찾아가 함께 민속예술을 가르치면서 함께 노는 걸쌘난 잔치다. 진도의 상여소리나 민요, 북춤, 한춤 등을 가르치고, 그것을 익힌 사람들 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다시 함께 뭉쳐 어르신 나눔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진도의 민속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어지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서로 나눈다는 게 즐거운 일이다. 아리랑걸쌘패를 맞아 주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는 하나의 어울림이다. 경로당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낙도 등 사람이 그림과 정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흥을 짙어지고 온 아리랑걸쌘패는 큰 위안이며 따뜻한 사랑인 것이다. 어느 때는 열댓 명이 버스를 타고 팽목항까지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노인 복지관에 대여섯 명밖에 없는 낙도로 갈



때도 있다. 지역 여건상 주민의 수가 적다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악기며 짐 보따리를 이고 지고 섬에 닿으면 섬사람들은 장에 서커스가 들어온 듯 모두 나와 반겨주며 그 정성에 고마워하고, 아리랑걸쌘패 단원들은 진심으로 맞아주는 정에 끌려 함께 흥을 일군다. 그야말로 동네잔치가 열리는 것이다. 가장 힘들 때는 한여름이다. 이럴 때는 공연이 뜸하긴 하지만 어느 때 갑자기 불려도 가지 않을 수 없다. 장구와 북, 팽과리 등 악기와 의상을 챙겨 들고 다니자면 힘에 부치기도 한다. 특히 농악을 해 달라 할 때면 3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로 단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는 군청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섬으로 가는 배를 내어 주기도 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다. 어르신 나눔 봉사를 나가면 어딜 가나 기쁘게 반기고 정을 듬뿍 안겨 준다. 어느 할머니는 신나게 연주하는 중에 차마 속 속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묻어둔 지폐를 꺼내 장구에 걸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 텃밭에서 먹음직스럽게 기른 상추를 뜯어서 싸 주기도 한다. 고미경 선생은 어느 곳에서 물이라 생각하고 마신 소주에 혼이 나기도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연주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음료수를 준다기에 시원한 물이나 달라고 했는데 그만 진짜 소주를, 그것도 커다란 대접에 따라 준 것이다. 그곳 경로당에는 흔히 물을 빈 소주병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곤 하는데, 하필 소주병에 담긴 진짜 소주를 한 대접이나 받아 마시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옛 민속이나 전통 놀이에 대해 여전히 젊은 층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아리랑걸쌘패는 오랜 벗보다 반갑다. 도회지의 경로당에선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는 게 다반사지만, 이곳에서는 진도 특유의 민요와 가

락들이 더욱 흥겹다. 심지어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도 예전부터 입에 붙었던 노래를 기억의 틈에서 꼬집어내어 함께 따라하고, 흥겨운 춤 동작에 따라 언제 몸이 부자유스러웠던가 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인다.

이처럼 모두에게 흥을 주는 아리랑걸썸패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는 그들하고 1대 1로 붙어 물리치료를 하듯 춤 동작을 가르치며 손발을 주물러 주기도 한다. 공연으로만 나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나눔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힘든 공연이지만 그들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뿌듯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정을 주고받다 보면 한 해가 훌쩍 지난다. 사업에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만 아리랑걸썸패는 그것을 개념치 않는다. 언제든지 불러주고 갈 곳이 있다면 짐을 싸서 달려가게 된다. 이렇게 평소에 서로 정을 쌓아 놓지 않으면, 그 정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들은 이렇게 한다. 자주 만나서 얼싸안고 걸썸나게 놀며 정을 쌓는다.

그래서 개인 비용이 적잖이 들기도 한다. 어르신나눔봉사사업 계획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 비용만으로는 총당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도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또한 사업 기간은 있어도 봉사 활동만큼은 기간이 없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봉사 활동은 항상 대기 상태이다.

“재능 나눔 봉사를 안 해 본 사람은 몰라. 그 묘한 것에 병이 걸려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 조오환 선생은 나눔 봉사 활동이 힘들지만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어울려 순환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그 젊은이가 늙어가고 그들을 위해 새 젊은이들이 나눔 봉사를 하는 체계다. 사람의 삶이 자꾸 세대를 이어 바뀌어 가듯 자연스럽게 세대가 이어지는 체계가 이롭다. 누구나 다 나눔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노령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지금 아리랑걸썸패에 수강생 출신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거개가 60대 후반에서 70대이고, 80대도 있다. 정기자(66)·조경자(66)·최미영(67)·이연순(68)·김명순(67)·김영순(67)·박채운(66) 어르신이 60대 후반이고, 이가삼(70)·이유복(72)·김행심(74)·박양준(74)·신순애(70)·하포산(70) 어르신이 70대, 박석근(82) 어르신이 최고령이다.

번거로운 것들은 내려놓고 ‘걸썸나게’ 놀아보자고 강강술래, 북놀이, 흥타령,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등 남도 민요, 뱃노래, 농부가, 농악 등으로 ‘걸썸판’을 벌이는 아리랑걸썸패는 어르신 문화 나눔 봉사 활동 외에도 여러 곳에서 판을 벌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 구분을 한다는 게 마땅치는 않다.

어느 때는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터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터를 올려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경로잔치를 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진도의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당연히 고락을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참여하고 거드는 진도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큰 참사에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행진과 문화제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때 만장 행렬은 3km까지 줄을 이었고, 조오환 선생은 세월호 모형을 들고 가는 맨 앞에서 상여소리를 불렀다. 슬픔은 나눌 때 반이 된다던가.

아리랑걸썸패는 걸썸나게 놀기도 잘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이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언젠가 그들도 이웃의 처지가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이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품앗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흔쾌히 짐을 싸서 나눔 봉사의 길을 나선다.

# 가

이계희(82) 어르신은 효행가를 낭송하던 와중에 목메는지 호흡이 일렁거렸다.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낭송을 끝까지 해냈다. 어르신에게 어떤 자부심, 꽃꽂한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도 이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내방가사는 규방가사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이 짓던 시이고, 일기이고, 교육 지침서이며, 생활의 지혜를 농축한 글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반가(班家)의 여성들이 행하던 문학 활동이 어떤 형식으로 형성된 게 내방가사였던 것이다. 현재 내방가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도 활발히 창작되는 지역은 안동이었다. 나는 안동에 내방가사를 공부하는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다. 평균 나이는 80대. 우스개로 70대 어르신이 물심부름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스개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터뷰 내내 그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엄격한 예의,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예의를 시종일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의 내방 가사 강사 이선자(66) 선생님은 말한다.

“이 분들은 대부분 이 지역 유력 가문의 며느리들이예요. 어린 시절부터 양반가 자녀로 교육 받고 평생 이 안동의 선비 문화를 뒤에서 받치고 있던 분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부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우리에게 양반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고집과 억압적 구조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반가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한 사대부 남성들 이외의 모든 구성원들은 억압적 환경에 있으며, 언제든지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픈 욕구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 본 할머니들의 표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이 구조에 부조리를 느끼지 못했을까?

“내방 가사의 내용은 시부모에 대한 불만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도 많은 거 같은데, 당시 양반가에서 그런 내용의 시를 짓고 읊어도 괜찮았던 건가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반가는 생각보다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집안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종 같이 살았던 게 아니예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을 이끌었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어요. 그게 양반의 태도라고 믿었어요. 시부모들도 며느리의 문화와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양반가라면 부모 자녀 관



계, 부부 관계, 하인과의 관계에서 호칭과 말투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어떻게 몰라도 적어도 태도에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매너가 없고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아주 규범적인 대답, 수사적인 대답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리 있다고 느꼈다. 분명 이렇게 철저한 영역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양반 문화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만 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성들이 내방가사를 자유롭게 짓는 것은 허용됐지만, 그 가사가 적힌 두루마리를 집안 외부로 유출하는 건 금지였다. 그 안에는 집안 사정이 뼈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가사만 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 가사들이 더 많아요. 내방 가사의 역할은 여성들의 속풀이에만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보다는 암기하기 쉬운 가사 형태를 통해 자녀들을 교육하고, 집안일을 가르치는데 더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개인의 경험을 녹여내는 가사도 많이 창작되고 있고요.”

그런 가사들의 예를 몇 가지 들려주었다. 금강산을 여행하고 지은 ‘금강산 유람가’, 신혼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신혼 시절가’, 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지은 ‘이산가족부모상봉가’, 승례문 소실을 다룬 ‘승례문 탄식가’ 등이 있었다. 또 세월호 사건을 지은 가사와 한 어르신 이 요양원에 다녀와서 쓴 ‘요양원 방문가’가 있었다.

김남이(86) 어르신이 지은 ‘장학가’는 다른 의미에서 인상적이었다. 이 가사의 내용은 한 할머니가 야학에서 한글 공부를 해 도민증을 만들고, 중국에는 투표까지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걸 김남이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다. ‘금강산 유람가’를 지은 김시한(85) 어르신은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내방 가사를 배웠다. 어쩌면 내방가사를 배우며 한글을 익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곧 어르신은 창작에 매진해, 1999년과 2012년에 전국내방가사 대회에서 상을 탔다.

이쯤 되니 나도 안동의 이 어르신들이 단순히 민요를 배우고 노래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말하자면 작가였다. 활발하게 창작하고 낭송하는 작가들이었다. 그들 스스로도 본인을 선비의 전통을 있고, 안동의 전통을 있고, 사대부의 전통을 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이날 만났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여러 전국 단위 내방가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었다.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내방 가사 분야에 관해서는 탑클래스였던 것이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은 일 년에 열서너 번에서 스무 번의 공연을 한다고 했다. 공연이 화제에 오르자 모두들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에 오르면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물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들의 즐거움을 좀 더 느끼고 싶었다.

“예쁜 옷 입어서 좋아요.”

“이 옷 곱지요?”

그날도 역시 모두 정갈하고 아름다운 한복을 맞춰 입고 계셨는데, 그건 사대부 여성들이 입는 여름용 한복이라고 했다.

“화장을 예쁘게 해서 좋지요.”

1 한국전쟁 직후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명서.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주민등록증 제도로 바뀜.



“가족들이 보러 와서 좋아요.”

이 순간 모두들 엄마가, 여자가, 그리고 평범한 경험에 솔직하게 즐거워하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 오래 오래 하고 싶다고. 지금 80대고, 90대지만, 더 오래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자 선생님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사님들 모두가 너무 고령이라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면 그만큼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매번 양식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전국의 모든 문화 단체가 겪는 공통 사항인 것 같았다. 안동문화원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었지만, 문화 활동을 하는 이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상급 기관은 그렇지 않은 듯 했다. 열정이 있고 성과가 높은 단체의 활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방 가사를 배우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안동에 가사 전수관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무형문화재급이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이 정도로 내방 가사를 이해하고 즐기고, 창작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한 곡 한 곡 암송하라고 하면 24시간을 쉬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수관이 생긴다면 이 분들이 그곳에 가서 후학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 전통을 지키는 데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들의 바람이 이해가 됐다. 다른 어르신 문화 단체와 그들은 지향점이 조금 달랐다. 그들은 단순히 인생의 즐거움, 새로운 현재를 가지고 싶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화를 배우고 취미를 즐기자 라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예술을 현대적으로 참여하게 끌어올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내방 가사에 관해선 우리가 한국에서 최고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이십 년 가까이 전통을 갈고 다듬은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기에 이 귀중한 문화재급 여성들은 나이가 너무 많았다.

끝으로 이선자 선생님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녀는 안동의 내방 가사 교실을 이끄는 수장이자, 전국적으로 내방 가사를 보급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안동 사대부 집안에 전승되고 보관되던 수많은 내방가사 두루마리를 발로 뛰며 수집해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가사를 현대적으로 바꿔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묻자, 간단한 대답을 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 내방가사였습니다. 이걸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후손다운 답변이었다.





# 현대가 스며들어

가 가  
,  
가  
.  
,  
,  
,  
가  
2

- | 서울 동대문문화원
- | 인천 부평문화원
- | 광주 남구문화원
- | 대전 중구문화원
- | 경기 의정부문화원
- | 전북 전주문화원
- | 경남 거창문화원

서울  
동대문  
문화원

왕언니클럽의 행복콘서트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나이없는날  
2014 어르신문화대축제



답십리에는 한국 최고의 영화 촬영소가 있었다. 이전까지 창고를 임시로 개조해 영화를 찍던 영화인들은 환호했다. 그 촬영소에는 스튜디오가 두 개 있었고, 연기자 대기실과 녹음실, 현상실에 식당과 커피숍, 그리고 목욕 시설까지 있었다. 한국 문화계의 가장 진보한 시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촬영소까지 가는 길에는 연탄 공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배우들은 그 길을 지나는 걸 대비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야 했을 정도였다. 차를 타고 가더라도 어느새 눈과 코에는 끼만 연탄 가루가 들어가 있었다.

동대문구. 그곳은 그런 곳이었다. 청량리 역세권에 위치해 시장이 발달한 도시. 인근에 커다란 시장이 몇 개가 있었고, 고미술상가도 있었고, 자동차 부품 거리도 있었고, 황물시장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꿈을 꾸며 상경한 그들은 시장 주변에 머물며 서울의 빈민이 되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90년대까지는 대규모 빈민촌이 형성된 곳이기도 했다. 동대문문화원이 있는 답십리에 가보면, 아직도 낡고 노후화된 건물들과 색이 바랜 간판들이 적지 않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매일 부동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여전히 빛바랜 사진과 같았다. 나는 민영 시인의 시 '답십리'를 기억해냈다. 그는 '거무튀튀한 쓰거운 물이 창자를 훑는' 이 답십리에서 '어디로 간들 솜통이 트이라'라고 노래했다.



“이곳에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살아가는 것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대문문화원의 강임원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한국 최고의 노인 공연팀이 있다면 믿겠는가?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했고, 방송 출연만 100회 정도. 즉석에서 뽑아낼 수 있는 레퍼토리는 16개 이상, 한 시간의 공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었다. 바로 ‘왕언니 클럽’이다. 그들은 6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들로 구성된 공연 단체다.

“애초에 공연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근 어르신들이 노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 이 단체를 꾸릴 때 영화 ‘시스터 액트’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 영화의 청소년들처럼, 노래와 춤을 배우면서 지역 노인들이 삶의 활력을 얻길 바랐다고 했다. 그렇게 취미로 춤과 노래를 배우는 교실이 개설됐다. 이에 관심을 가진 몇 명의 할머니들이 모였다. 당시에는 연령 제한도 있었다고 했다. 60세 이하는 가입할 수 없었다. 1년간의 연습이 이어지자 어른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그들은 조그마한 공연이라도 하길 원했다. 이에 강임원 국장은 작은 무대를 섭외했다. 공연은 예상외의 히트를 했다. 이 공연은 또 다른 공연을 불러왔고, 그들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연습했고, 몇 차례 방송 무대에 오르게 됐다.

그 무렵 엠넷(Mnet) 방송국에서 섭외 요청이 왔다. 방송국측은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왔다. 할머니들이 주얼리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을 부르길 원한다고 했다. 노래뿐만 아니라 안무와 의상까지 모두 소화하길 원했다. 강임원 국장과 왕언니클럽 단원들은 그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강사를 섭외하고 성실하게 공연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방송은 전국적으로 '잘 노는 할머니들'의 탄생을 선포하는 방송이 됐다. 그 해가 2008년이였다. "그 이후 섭외가 물밀 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연습에 연습이 이어졌다.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원더걸스, 시크릿, 소녀시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등을 연습했다. 새로운 아이돌이 새로운 춤으로 나타나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상의했다. 2009년에 소녀시대가 마린룩을 입고 군무를 쳤지만, 2008년에 이미 왕언니클럽은 마린룩을 입고 열을 맞춰 춤을 쳤다. 강임원 국장은 이런 얘기도 들려줬다.



"한국문화원협회 50주년 행사' 때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와있었는데요. 무대가 대통령 바로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연에 올린 곡이 하필 시크릿의 '사이보이'였던 겁니다. 그 노래의 춤 있잖습니까?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는 그 춤. 그걸 출 때 가사가 '바람동이는 바로 너'인데, 그만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탁 찌르면서 바람동이는 바로 너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등에서 땀이 뺄뺄 났어요."

왕언니클럽의 막내 '이뿐이' 조순희(64)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곤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꼭 자신의 별명 '이뿐이'도 함께 써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슈퍼스타K에도 출연했다. 심지어 본선 무대에도 올랐다. 그때 울랄라세션과 함께 공연했다고 했다.

"우리도 알았어요. 우리는 어차피 떨어질 거고, 우리는 방송용이라는 걸. 그래도 슈퍼스타K잖아요."

1 2012 전국 지방문화원장 청와대 오찬

왕언니 클럽의 회장, 이정자(70) 어르신이 말했다.

“아유, 방송도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 같은 거야, 느낌이, 느낌이 그래. 그래서 리무진 탈 때도 탁 이랬지, 어머 이 길쭉한 차는 뭐대냐? 우리가요, 아무리 할머니라도 리무진 정도는 알아요. 근데도, 어머 이 길쭉한 차는 뭐대냐, 이랬다니깐요.” 그리고 또다시 그녀들은 깔깔깔 웃었다.

과연 그들의 연습 장면을 보니 왜 그들이 동대문구의 최고 스타인지 알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약 열 개 정도의 공연을 막힘없이 풀어내는데, 평소의 성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 게다가 이른바 고참들의 유연함과 리듬감은 정말 잘 노는 누나들 같았다. 특히 그들을 앞에서 이끄는 강계월(71) 어르신의 카리스마는 대단했다. 강임원 사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전문 공연팀이 아니고 대부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단원들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한평생 장사와 살림만 하던 어르신들에게 갑자기 춤을 가르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강계월 어르신의 중요함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다고 했다. 그녀는 명목상 보조 강사였지만, 연습과 모임의 체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이를 테면 선생님 같은 존재였다. 기실 이런 모습은 ‘왕언니클럽’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노인 문화 교실에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꼭 있었던 것이다. 반세기를 생업에만 종사하던 노인들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데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왕언니클럽은 공연과 연습에 관한 행정적 실무를 책임지는 강임원 국장과 열정적인 리더 강계월 어르신, 애정과 자부심이 강한 단원들, 그리고 진심으로 즐겁게 가르치는 함진영 선생님까지, 정말 견고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연이 가능한 것이다. 인터뷰하는 내내 왕언니클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강한 자부심이 흘렀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그럴 만한 것이었다. 이들의 지도 강사인 함진영 선생님은, “이곳은 다른 공연팀과 달라요. 이건 다른 노인 교실과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공연팀으로만 봐도 그래요. 다른 곳은 춤만 추든지, 노래만 부르든지 해요. 하지만 왕언니클럽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대부분이 춤이라곤 생전 춰본 적 없는 60대인데 말이에요.”

이들이 삶을 즐기는 모습에 일견 부러움조차 느껴졌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강임원 국장은 말했다.  
“왕언니 클럽은 문화원 활동에 관심 있는 노인들에겐 가장 동경의 대상입니다. 멀리 부산에 사는 노인 분께서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한 적도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들어오고 싶다고 몇 번이나 연락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

“모두 할머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활력이 넘치고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연이 끝나면 감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와서 부둥켜안고 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용인 어느 요양원에서의 공연에서는 어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할머니가, 그 10분도 집중 못하는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나이 또래의 할머니들이 하는 공연을 한 시간 동안 본 적도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스타예요. 전국에서 벤치마킹 의뢰가 들어옵니다. 왕언니클럽을 벤치마킹한 30, 40대 걸그룹 댄스 공연팀도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그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 아닙니까. 저들이 어리면 돈이 모자라는 만큼 몸으로 때우거나 열정으로 버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공연을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통비 식사비 정도는 필요합니다. 공연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사비나 각종 부대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스폰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공연 의뢰가 들어왔을 때 높은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식사비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려고 하면 섭외 요청을 하는 측은 차라리 더 전문적인 팀을 부르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임원 국장은 힘을 쥐 말했다. 이미 왕언니클럽은 어르신 공연계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단체라고 했다. 더 전문적인 것들을 하고 싶지만 예산과 지원의 문제로 그걸 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직접 왕언니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 버스까지 몰 수 있는 대형 면허증을 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들에게 물었다. 왕언니클럽을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짜증이 없어져요.”

“의 상한 일이 있어도 금세 풀려요. 마음이 넓어져요.”

“나태함이 덜어져요.”

“얼굴이 항상 삶에 찌들어 있었는데, 예뻐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열댓 개 하는 노래와 춤을 다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즐거워져요. 설거지 하다가 춤추고, 청소하다가 춤추고 그래요.”

그때 밝은 표정으로 다소곳이 앉아 있던 한 ‘왕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전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 말은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이 말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감동적인 말이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재개발로 많은 것이 바뀔 답십리를 걸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왕언니클럽의 구성원들도 바뀔 것이다. 하지만 한 순간이라도 황금기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동네는 그런 동네다. 왕언니 클럽 덕분에 또 하나의 동네를 마음에 품게 됐다.





## 인천 부평 문화원

행복한 실버극단 은빛여울  
어르신문화동아리

# 가 가

연습실에 들어가니 어르신께서 의자를 들고 와서 펴 주셨다. 그리고는 신이라며 허리를 굽혀 신발장의 슬리퍼를 가져다 주셨다. 나의 첫인상은 그것이었다. 이곳 어르신들은 친절하고 심지어 죄송할 정도로 겸손하시다는 것이다.

이곳은 대부분이 신인인 연극배우들의 연습실이다.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가득 찬 곳이다. 그들은 성실하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이 두 가지가 신인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극단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다.

‘은빛여울’은 연극에 대한 꿈이 있는, 더불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극단이다. 이제는 모두 인생의 황혼을 맞으신 분들이다. 대부분 집에서 살림을 하시며 노후를 맞으신 분들이다. 그런 분들께 연극이라는 꿈이 찾아왔고, ‘은빛여울’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어르신들은 보통 집안 살림과 함께 극단 연습을 하신다. 살림과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분들겐 ‘은빛여울’이 주된 일이 되었다.

연습실의 남자 분들은 대략 다섯 분 정도고 나머지는 여자분들이시다. 그 중 한 분은, 부인의 마음을 읽고 연습 때마다 데려다 주시고 구경하시다가, 이제 함께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부가 같이 극단의 단원이 된 경우이다.

말한 것과 같이 은빛여울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최고령 어르신은 올해 86세이시다. 극단 분들은 최고령 어르신께 왕언니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고 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활동 하면서 나이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 하시던 왕언니 권기남(86) 어르신. 어르신은 별주부전에서 호랑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잠깐 나와 “어흥”을 하셨지만, 열심히 연습하셔서 매주 가장 호랑이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권기남 어르신은, 대본을 외우는 것이 어렵고 몸





도 맘껏 못 움직이시지만, 다함께 합을 맞추는 것이 기쁨이란다. 또한 노인요양원 치매센터 같은 곳에서 같은 노인을 위해 공연을 하실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비단 권기념 어르신뿐만 아니라, 64세부터 86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나이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활동을 오래한 분이 당연히 선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곳의 멋지고 자율적인 분위기(?)이다.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대사를 외우는 일이었다. 젊은 층에 비해 암기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대사를 외우고 동선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다. 하지만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함께 웃고 서로 다독이며 연습을 한다. 연극은 그 누구를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린 사람을 위해 기다려 주고 다함께 나아가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사가 많으면 대사가 너무 많다며 조금 줄여달라고 엄살 아닌 엄살을 부리시지만, 결국 해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정소영(49) 선생은 감탄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은빛여울’은 더블캐스팅의 뽕뽕한 극단이 아니다.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자리를 비우시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극단에서 가장 주의를 하는 게 어르신들의 건강이다. 아프시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아시는지 어르신들은 건강을 챙기시고, 더불어 극단에 나오시며 더욱 마음의 건강까지 찾으시는 듯하다.

어르신들은 연극을 하시며 또 다른 차원의 양보도 하고 있었다. 연극은 팀워크가 깨지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배려하며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조직을 만들고 있다. 삶이 제각각 다른데 ‘은빛여울’에 들어서면 모두





가 하나같다는 어르신들. 헤어지면 각자의 일정에 바쁘지만 언제나 서로를 위해 파이팅을 한다고 하신다.

이런 협동심엔 선생님과 단장님(김경해, 72)의 힘 또한 크다. 제 각각 다른 분들이지만 단장님은 모두를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독이신다고 하신다. 연극이 있으면 연극 전 사회도 맡으시며 극단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선생님은 어르신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배역 등을 정하며, 각자의 개성을 살려 연기 하고 재미를 들일 수 있게 도와주신다.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내면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어르신들은 극단 생활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었다.

단원 중 한 어르신은 암 진단을 받으셨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거동이 어려우신데도 극단에 오셨다고 한다. 병원에 들어갈 때도 대본을 챙겨간 한복순(73)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 편이 찡했다.

파독 간호사였던 어르신도 계셨다. 젊으실 때 독일로 가셔서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다고 한다. 급할 땐 독일 말이 튀어나오던 어르신.

귀가 잘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오시던 어르신. 하지만 발성이 크고 뛰어나 장점을 살려 함께 무대에 오르셨다고 하셨다. 단원들이 다독이고 함께 연습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은빛여울’은 연극 연습뿐만 아니라 의상과 소품 또한 직접 만든다. 할머니들은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의상을 만드시고, 할아버지들은 직접 무대용



칼과 지팡이 등을 나무를 깎아 만드신다. 소품실에는 어르신들이 공연을 위해 함께 만드신 의상과 소품들이 꽉 차 있었다. 어르신들이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의상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에 손길이 느껴졌다. 한편, 연극은 자신 안에 있고 있었던 모습을 끌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80세의 어르신이 18세 청소년을 연기할 때는, 쑥스럽지만 결국 배역에 몰입하여 소녀인 자신을 꺼내신다. 있고 있던 소녀를 꺼내어 그들은 스스로를 소녀로 만든다. 처음엔 모두가 쑥스러워하며 소녀처럼 깔깔거리지만, 연습이 반복될수록 배역에 푹 빠진다고 하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의 무대를 만들고 계신다. 은빛여울이 근사한 이유는 이러한 팀워크 때문일 것이다.

‘은빛여울’은 2007년 창단 이래 꾸준히 많은 상을 받고 있다. 창단 해인 2007년에는 ‘한국문화연합회 실버문화 축제’에서 우수상을, 2009년에는 <춘천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일반·대학부문 우수상을, 2012년에는 <부천 보라매연극제>에서 실버부문 3관왕(실버부문 대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을 하셨다.

그 외의 상들도 많지만 그런 열거보다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핀 웃음과 삶에 대한 애정이 더 큰 상이다. 2011년 춘천인형극제에서는 수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평으로 돌아오시는 버스 안에서 서로 아쉬워하시다 결국 “우리가 상 타러 왔냐”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을 했던 것이 대표적 일화이다. 이런 긍정적 마음 때문인지, 결국 다음 해 대회에서 어르신들은 3관왕을 하셨다.

어르신들은 분명 수상 때문에 연극을 하시는 게 아니다. 공연 후의 기쁨. 그것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 하신다. 그래서 왕언니는 단 하나의 후회뿐이다. “진직에 나올걸!”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 나왔으면 대사

와 동선을 더 자유롭게 하셨을 거라고 아쉬워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연극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농담에,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하였다.

어르신들의 활동은 가정에서도 예쁜 빛이 된다고 하신다. 자녀들은 엄마가 연극배우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가득 찼다. 손자들도 공연을 보며, 평소와 다른 무대 위의 할머니를 보며 신기해한다고 한다. 무대가 끝나면 배우를 보듯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는 손자들의 모습을 보며 노년의 보람 또한 느끼신다고 하신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노년의 삶을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보내고 계신다. 집 안팎으로 모두의 배우가 되어서 말이다.

우리 진즉에 어르신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삶은 무대에 비유되기도 한다. 각자가 주인공인 그런 무대 말이다. 그래서 이제야 무대 위에 어르신들이 설 수 있게 한 것이 죄송할 따름이다. 평생을 주부로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았을 뿐, 정작 스스로의 삶을 보여 줄 수 없었던 것이, 이제야 '은빛여울'이란 극단을 만나 빛나고 있다. 어르신들은 이제 가족들을 위한 조연에서 스스로도 빛나는 주연이 되고 있다. 자신을 위해 연습하고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런 연습의 결과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으로 봉사까지 할 수 있으니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던 말인가. 무대에 서서 대사를 하고 몸짓을 하는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어르신들. 그런 기쁨을, 그런 보람을 너무 늦게 맛보게 해드린 건 아닌지 죄송할 따름이다.

어르신들은 이제 주연으로서 무대에 선다. 모두가 주연이고 모두가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섰다. 관객과 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시 보고 계신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어여쁜 스스로의 모습을 말이다. 이제야 시작이다.

나이가 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어르신들은, 이제 새롭게 만난 보람과 행복 덕분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동선이 조금 엉키는 날도 있고 대사를 실수하실 때도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한 걸 알기 때문이다.

## 광주 남구 문화원

알로하 은빛양상블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

# 가

어디선가 벼룩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따라 끌려가듯 연습실로 들어가면 모두 알로하를 입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다. 알로하 차림에 작은 4줄짜리 악기 우쿨렐레<sup>1</sup>를 든 그들이 바로 '알로하은빛양상블' 단원들이다. 30여 명의 어르신들은 박경희(54) 선생의 지휘와 지도를 따라 가요를 연주하고 있다.

“땡땡! 땡땡! 땡땡!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아파트〉에 이어 〈젊은 그대〉를 연주한다. 여전히 리듬은 조금 느리다. 정상 연주 속도를 내려면 아직은 멀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이만한 연주를 하는 것도

1 하와이에서 비롯된 여름용 서츠. 화려한 무늬의 천으로 만들어 소매는 반팔 정도의 길이로 짧다.

2 4개의 줄이 달린 현악기로, '뛰는 벼룩'이라는 의미가 있다.







어딘가. 어르신들에게도 그들만의 '젊은 그대'가 남아 있기에 이만한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건 아닐까?

일반인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악기를 배우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쿨렐레는 짧은 시간에 반주와 노래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처음엔 쉬운 동요부터 시작해서 점차 연주하고 싶은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지만 가슴 뿌듯한 시간들이다.

처음엔 악보를 보는 것도 코드를 짚는 법도 모른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나 점차 우쿨렐레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코드 짚기도 기타보다 훨씬 쉬워 빠른 시간 안에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매력에 지닌 우쿨렐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0년 대 초반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6년부터는 우쿨렐레 페스티벌이 열릴 만큼 파급 속도는 빨랐다.

지금은 각 학교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우쿨렐레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수많은 우쿨렐레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등 이제 '우쿨렐레'라는 이름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첫 키스만 50번째> 등 우쿨렐레가 나오는 영화, 우쿨렐레 연주곡 등 어디서나 쉽게 우쿨렐레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광주광역시남구문화원에 우쿨렐레 강좌가 처음 개설된 것은 2013년이다. 30여 명의 수강생을 모아 처음으로 우쿨렐레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3년째. 이제는 우쿨렐레 연주가 조금씩 몸에 익어가는 어르신들 속에 매년 두세 명이 새로 채워졌다. 맨 처음엔 남성 수강생도 1명이 있었으나 그 분이 빠져나가고 지금은 전부 여성 어르신들로 채워졌다.

알로하은빛양상블을 꾸려가는 어르신들은 60~80대 어르신까지 열정을 다해 화음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노후를 즐기기 위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쿨렐레를 배우고 나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분들이 많다.

전직 공무원인 정순옥(63) 어르신은 이곳에 와서 처음 악기를 다루어 본 초보였다. 악기라곤 기타 같은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만져 보기만 했지 다룰 줄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쿨렐레를 품에 안고 직접 연주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정년 퇴임을 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팝송을 함께 부르거나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악기를 배워 보기로 했다. 노래를 부를 때 연주도 하면 금상첨화일 듯했다.

그렇게 시작한 지 3년. 동요부터 시작하여 점점 연주 레퍼토리를 늘려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가요도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그는 알로하은빛양상블의 총무도 맡아 뒤통자까지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4어르신문화대축제-나이 없는 날'에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연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우쿨렐레 팀이 경연하는 우쿨렐레 페스티벌에도 참여했으며,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24개 문화원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공연에도 참여했다. 그것 또한 큰 즐거움으로 남았다.

한편, 전직 간호사인 주옥련(67) 어르신은 57세 때 직장에서 나와 시작(詩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3 '경상남도-광주광역시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

시 공부를 함께하는 분이 우쿨렐레를 함께 배워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 7명이 함께 등록을 하였다. 이 중에는 교사 출신들이 많았다.

시를 공부하고 우쿨렐레를 배워 연주하는 취미가 같아 7명은 친구처럼 시도 때도 없이 만나며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느낀다. 시낭송을 할 때면 우쿨렐레 연주를 곁들이면서 더욱 활기 있는 모임으로 이끌기도 한다. 시와 음악을 조화시켜 그들만의 오묘한 생활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쿨렐레 솜씨를 봉사하는 삶에 결합시켜 나눔을 실천하는 어르신도 있다. 정진숙(68) 어르신은 예전에 복지관에서 우리 춤을 가르치다가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우쿨렐레를 배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우쿨렐레를 배운 몇 사람들과 함께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춤을 접목하여 체조하듯 운동을 시키고,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춤을 추며 즐긴다.

〈소양강 처녀〉, 〈돌아와요 부산항에〉, 〈봄날은 간다〉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시낭송을 해 주는가 하면, 옛날 얘기를 해 주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방에 갇혀 딱딱한 침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물하는 것이다. 그의 나눔 봉사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끔 시골에도 간다. 역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남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한다.

이제는 제법 유명한 대중가요도 인터넷에서 악보를 내려 받아 연습하여 이웃이나 가족들과 함께 부르기도 한다. 손자들하고 같이 동요를 부를 때면 더욱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온 가족이 그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멋쟁이로 통한다. 이처럼 우쿨렐레는 즐겁고 재미있는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래 활동하다보니 요양원에서는 각자 팬들도 생겼다. 어쩌다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집안 일로 못 나오면 서운해 하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그는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 좋고, 줄 것이 있는 사람이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나눌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알로하은빛양상블은 1년에 두 번 정도 행사를 열어 무대 경험도 쌓고 있다. 비록 실력은 고르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즐기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없다. 우쿨렐레로 인해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생활이 여간 즐거운 게 아니다.

행사를 하면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 자기 아내 공연을 보려고 자식들이나 손자, 남편 등 가족들이 모여 성황을 이룬다.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바친 가족들 틈에서 이제야 새로운 자리를 차지한 듯도 싶다. 그렇기에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을까.

이를 3년째 지도하고 있는 박경희 선생은 어르신들하고 열심히 두 시간 놓고 가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 어르신들은 처음 대하는 악기니까 배우





문화로 몸들다



는 데 차이가 나고, 다른 악기에 비해 쉽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것이 아니다. 코드를 잡을 때도 항상 느리다.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조금 틀리더라도 대수롭지 않고 함께 쉬엄쉬엄 고비를 넘다 보면 그 또한 즐거움의 한때다.

어르신들은 아이들보다 더욱 진지하고 임하는 태도도 너무 성실하다. 그런 표정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그.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코드 하나 더 알면 뭐하나. 그냥 놀다 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을 대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깃듯이 선생님을 대해 준다. 흔히 어르신들이 모인 집단에서 아웅다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서로 협조도 잘하고 출석률도 좋다.

3년 전 처음 함께 모인 어르신들의 모습은 서로 서먹서먹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많이 친해지고, 서로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로서 즐거움을 한껏 만끽하려 한다.

행사에 같이 나가서 무대에 서보는 경험은 또 색다른 삶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단원들, 그분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하지만 연주 무대에 서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잔잔한 떨림의

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순위에서 자기 순위는 밀려났으나 이제는 자기의 시간을 찾아 놀다 간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처음엔 모두들 너무 자신 없어 했으나 차츰 자신감과 보람을 찾고, 스스로 자립해 가는 과정이다. 박경희 선생 역시 그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계속 인연을 갖고 해보고 싶어 한다. 소외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싶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미리 준비도 하고 시간만 나면 음악 관련 정보도 찾아서 준비를 하여 어르신들을 만난다.

보조교사(박애정 51)와 함께 교애임(69) · 김광자(64) · 김금희(66) · 김기순(69) · 김정숙(67) · 박병순(65) · 박순희(64) · 박애재(57) · 백남순(69) · 백영숙(67) · 변경은(68) · 양매자(66) · 윤영자(73) · 은송희(72) · 이숙자(70) · 이숙희(71) · 이영란(67) · 이영란(68) · 이영희(66) · 이옥희(65) · 임경자(66) · 임만자(75) · 정정희(67) · 차숙희(67) · 최귀임(65) · 최숙자(64) · 최영숙(65) · 한상원(82) · 홍원자(66) 어르신들을 만나는 우쿨렐레 수업은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진행된다. 수업하는 것 자체가 재미일 수밖에 없다. 벼룩이 뛰는 속도는 아직 느리지만, 그들은 아직도 설렘을 '아파트' 창에 걸어 둔 '젊은 그대'들이다.



대전  
중구  
문화원

은빛소리샘 연주여행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가

매주 금요일마다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삼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이 건물 밖까지 퍼져나가 중구문화원은 은빛의 물결을 이루는 소리샘이 된다. 연주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은 지금, 악기에 푹 빠져 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어르신문화학교 '은빛소리샘'은 현재 25명의 어르신이 협연하며 7년째 이어오고 있는 문화 공동체다. 55세부터 80세까지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소리샘' 구성원들은 처음엔 악기 잡는 법도 몰랐다고 고백한다. 그랬던 초보 중에 초보들이 꾸준한 연습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방송에도 출현하는 유명 그룹이 됐다. 처음엔 배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무대에 설 정도의 프로들이다.

오랫동안 화음을 맞춰왔기 때문에 '은빛소리샘' 어르신들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있는 금요일은 하루를 '은빛소리샘'을 위해 뺀다. 한 달에 한 번은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는 인근 요양원이나 지역

축제 등에 공연을 나간다. 그렇기에 공연이 있는 날은 종일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다. 하루를 꼬박 연습하고 연주하고도 연주가 끝나면 은빛소리샘 어르신들은 더 많은 곡을 연주하고 싶어 몸이 근질 근질하다. 생각 같아선 밤새도록 연주하고 싶다. 음악이 주는 매력은 말할 수 없이 깊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이유는 이 연주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노인정, 아동센터, 유치원, 마을축제 등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의 연주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간다.

금요일 오후 봉사공연이 있는 날, 공연 장소인 남대전요양원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은 각자의 악기를 풀고 자리를 잡아 대열을 갖추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준비하는 모습부터 능수능란하다. 대열을 갖추자 어르신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오케이. 준비됐다는 서로의 사인을 읽자마자 하모니카와 기타 그리고 오카리나의 합주가 시작됐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널리리 맘보’, ‘보리밭’ 등 귀에 익숙한 곡이 연주될 때마다 청중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요양보호사와 동행하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은빛소리샘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이미 낮이 익어 가족 같다. 그리고 이제는 청중의 마음도 읽는다. 박수소리, 청중의 눈빛만 봐도 오늘 공연이 성공적인지 감이 온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머리 희끗한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유증으로 몸의 반이 마비된 상태지만, 한 쪽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맞은편 손을 두드리며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한 박자씩 늦게 따라오는 음이지만 노래를 따라하는 관객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관객의 반응이 좋으면 ‘은빛소리샘’ 어르신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그럴 때는 마이크가 없어도 연주곡이 찌렁찌렁 울린다. 종일 무료로 계시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빛소리샘 어르신들은 지칠 줄 모르고 연주했다.

“표정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음악이 저분들의 가슴에 가 닿았구나.’ 하는 것어요. 그때 가슴 속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뜨끈한 것이 차올라요. 그때의 기분은 말로 못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프로예요.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진다고요.”

하모니카를 담당하고 있는 은빛소리샘의 반장 구진영(59) 어르신은 공연을 마치고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을 말했다.

“이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이에요. 이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하모니카 연주자 강옥순(63) 어르신은 인터뷰 내내 손에서 하모니카를 놓지 않았다. 오랫동안 의상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퇴직한 후 새롭게 시작한 것이 하모니카이다. 하모니카는 호흡을 들고 내는 것으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어린 시절 하모니카를 잘 부는 어른들이 그렇게 멋있게 보였다는 강옥순 어르신은 옥수수 먹고 나면 옥수수를 입에 물고 다니며 하모니카 부는 시늉을 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이었죠. 어릴 때 오빠가 뒷동산에서 하모니카를 굉장히 멋있게 불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오빠에게 한 번만 볼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불어보면 오빠만큼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 후로 언젠가는 하모니카를 배워야지 하고 버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하고 바로 하모니카를 시작했어요. 디자인과 하모니카는 전혀 다른 장르 같지만 어쩌면 굉장히 비

스해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색깔을 결정하고 그것이 타인의 몸에 가 닿는 것처럼 하모니카도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새롭게 창조되죠. 그 소리가 다른 악기들과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하고, 그 음악이 타인의 몸에 가 닿을 때, 그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 재미를 이제야 맛보고 있습니다.”

강옥순 어르신은 이제 하모니카를 시작한 지 7년째다. 이전 하모니카를 넘어서 집에서 툼툼이 기타도 연습하고 피아노도 연습하면서 다른 악기에도 도전하고 있다. 문화원에 나오지 않는 요일에도 고요한 거실에 앉아 악기를 연주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된다. 퇴직하고 나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강옥순 어르신은 현재 드럼 배우기에도 열중하고 있다.

“음악은 하나로 통하잖아요.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니 다른 악기에도 자신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 악기, 저 악기 배우면서 나와 악기가 한 몸이 되어 가는 걸 느껴요.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악기가 많은 줄 바쁠 때는 미처 몰랐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느라 강옥순 어르신의 일주일은 짧다.

“단순한 재미도 있지만 이 악기라는 것이 감동도 가져다줍니다.”

기타 파트의 신동교(68) 어르신도 한 마디 거둔다.

“내가 계속 기타를 만지고 연습하니까 집에 놀러왔던 손녀가 기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기타를 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방과 후 수업으로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손녀가 집에 놀러 오면 우리 같이 기타를 치고 내가 기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녀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셈이죠.”

기타를 만지는 신동교 어르신은 손녀가 새끼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놓았다며 새끼손톱을 내보였다. 손가락 끝마다 굳은살이 났 신동교 어르신은 처음 시작할 땐 몇 번이나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했다.

“손가락이 원체 아파서요. 그런데 이것도 못 참으면 나중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꼭 참고 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굳은살이 났지만, 지금 몇 곡이라도 연주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육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퇴직한 후 기타를 잡은 신동교 어르신에게 기타는 또 다른 직장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타 생각이 나고 점심 먹고도 기타 생각이 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타를 만진다. 기타가 저 구석에서 눈빛을 보내는 것처럼 신동교 어르신은 날마다 기타얇이 중이다.

평소엔 설 수 없던 무대에도 서 보고 방송에도 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기타 때문이다. 그냥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았을 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기타를 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꿈꿀 수 없었던 세상으로 날마다 데리고 갔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고 두근거리는 나날의 연속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기회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연습해요. 문화원에 나오지 않는 날도 집에서 가만히 줄을 튕기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내 손끝에서 소리가 울려나올 때 지금도 신기하고 기분이 이상해요. 정말 이 곡을 내가 연주했다니. 그런 생각으로 전율을 느끼기도 하지요.”

신동교 어르신은 합주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봉사활동을 나갈 때 악기를 운반하고 운전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여기서는 제가 청년이죠. 저와 선생님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굼직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죠. 여기는 내가 꼭 필요한 곳 같아서 무척 행복합니다.” 어르신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무거운 앰프를 드는 등 청년이 해야 할 일은 신동교 어르신이 맡아서 하는 셈이다.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남편을 졸라 기타를 배웠다는 강민선(58) 어르신은 은빛소리샘 반의 막내다. 꾸준히 기타를 연습하고 처음 결과 이제는 독주까지 가능하다는 강민선 어르신은 맛있는 기타 독주와 함께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저는 거의 유일하게 미리 기타를 배워서 들어왔는데요. 공연마다 6~7곡을 연주하니까 ‘은빛소리샘’ 구성원들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하모니카는 계속해서 붙어야 하니까 많은 곡을 소화하기 어렵죠. 그럴 때 제가 독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구성원들이 잠시 쉴 수도 있죠. 저의 독무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에 생기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은빛소리샘에서 가장 어린 강민선 어르신은 기타를 튕기는 손이 남다르게 빨랐다.

은빛소리샘의 반장인 구진영 어르신은 은빛소리샘이 생기기 전에도 중구문화원과 인연이 깊었다. 문화원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다가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생겨서 하모니카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 한국화도 공부하고 사서오경도 공부하느라 바쁜 나날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단연 하모니카다.

반장답게 구진영 어르신은 은빛소리샘의 자랑으로 입을 여셨다.



“우리 팀이 가장 단합이 잘 됩니다. 구성원들끼리 협조가 잘 되지요. 파트별로 연습할 때도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잘 하시는 분은 끌어주고, 조금 부족하신 분은 집에서 더 열심히 연습해 오시면서 팀의 템포에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라며 밝게 웃는 구진영 어르신의 미소에 열핏 소녀의 모습이 비친다.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이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버팀목이에요. 악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악기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은 동요나 가요 정도가 전부지만 그 가락 속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녹여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 잘 들어주시니 무척 감사하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음악을 듣고 누군가 울고 웃고 박수쳐주시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공연을 갈 때마다 봉사를 갈 때마다 하나씩 배우고 돌아온다는 구진영 어르신은 현재 또 다른 악기를 배우기 위해 물색 중이다.





어르신들에게도 가족 일이 있고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날마다 25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출석할 순 없다. 그래도 20여 명 이상은 늘 출석해 연습에 매진한다. 연습 때마다 실력이 늘어있는 어르신을 볼 때면 서로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악기는 고시 공부하듯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게 어르신들의 지론. 내 실력 부족으로 인해 연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다.

나의 입김과 손가락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은빛소리샘' 어르신들은 악기와 시간을 보내느라 일주일이 바쁘다.

“악기라는 게 연습할수록 더, 더, 연습할 것이 늘어나요. 인생 같지요? 많은 고개를 넘어온 것 같은데 또, 또, 고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고개를 넘을 때마다 더 큰 희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배우고 몸에 익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지요. 이 나이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설레고 또 온 몸을 떨 만큼 기쁜 일을 만나겠어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연주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진영 어르신은 '은빛소리샘' 회원을 대표해 연주의 매력을 말했다. 악기로 인해 행복을 찾는 것. 그렇기에 악기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이 된다. '은빛소리샘' 어르신들의 시간은 지금도 멜로디로 가득 차 있다.



## 경기 의정부 문화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출동 123세대 한마음밴드'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첨엔 얼굴도 뽀얗고 몸도 호리호리했어. 우리가 하도 속을 썩여서 저리 되셨지……."

어르신밴드 지도 강사를 두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다. 능숙하게 무대 세팅을 마친 밴드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한정호 선생이 문화원 강당 뒷좌석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보다 연배가 아래여도 한참 아래인 강사를 어르신들은 깎듯하게 선생님으로 부르고 모신다. 그럴 만도 하다. 실력파 프로페셔널 밴드의 리더인 한선생은 이 밴드의 운영 취지에 깊이 공감한 2007년 초부터 지금까지 - 그러니까 십년 가까이 턱없이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보수가 없는 시기에도- 밴드의 지도를 맡아 주었다. 어지간한 애정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풍채가 넉넉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한선생에게 슬쩍 다가가,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예전엔 뽀얗고 날씬하셨다면요?"

"제 업보인 것 같아요,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한숨을 포옥 내 신 입과는 달리 연습에 몰두한 밴드를 바라보는 눈에는 애정이 담뱃 담겨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밴드와 함께하겠다는 한선생만의 대화법인 듯했다.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어르신의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음악 경험이 전



혀 없는 어르신들만으로 밴드를 만들어 합주와 공연을 가능하게 해보자는 의정부문화원의 야심차고도 무모했던 계획과, 그 무모한 취지에 동참하여 때로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밴드를 챙겨온 지도 강사의 정성과, 도레미 파솔라 음계도 잘 모르면서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도전했던 피땀 어린 노력의 나날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것이다.

2015년 현재까지 큰 부침 없이 평균 7~8명의 고정 단원으로 꾸려지고 있지만 밴드를 처음 모집한 2007년에는 지원자가 30여 명이 넘었다. '악보를 볼 줄 몰라도 괜찮다, 초보자라도 무조건 환영한다.'는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다투어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연습에 들어가자 하나 둘 이탈자가 생겼다.

악보 보는 법에서 시작해서 악기 다루는 법, 음향기기 조절 방법, 무대 세팅 요령까지 무대의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죄다 배우고 스스로 해결하는 일은 음악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들에게 정말이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연습을 하며 늘었다고 생각한 연주도 합주를 해보면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몸의 리듬과 마음을 나 아닌 여러 사람과 맞추기가 어떻게 쉬울까. 젊은이들로 구성된 밴드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금세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어르신밴드의 사정이야 오죽했을까 싶다.

어쨌든 '음악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들의 밴드 도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밴드가 결성된 지 서너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언론이며 방송에 이야기가 노출되었고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대부분 거절했지만 전부 거절하기는 어려워서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어르신밴드의 이야기를 짧막하게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부의 높은 기대치에 비해 공연은 뭐라고 표현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방송에는 부라부라 섭외한 젊은 아마추어 밴드의 연주를 덧씌운 화면이 나갔다. 그러자 자신들 탓이 아닌데도 어르신들은 낙담했고 위축됐다. 이탈자가 생겼다.

단원의 이탈은 다른 문제로도 계속 발생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기에 건강 문제가 이탈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신상의 변화, 단원들 간의 호흡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생판 초보 수준의 연주가 그럭저럭 어느 경지까지 오른 단원이 이탈하면 타격이 컸다. 대체할 단원 충원에 대한 문화원의 고민도 깊어졌다. 밴드의 지속을 위해 다시 완전한 초보자를 뽑아야 할 것인가. 타협점은 오디션을 통해 젊은 시절에 음악활동을 하지 않았고, 전문적 지도를 받은 적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아마추어 연주자 영입하는 지점에서 찾았다.

1년 가까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르신밴드는 제대로 된 무대에서 두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전국의 문화원 원장님들이 기립 박수를 쳤다. '음악 경험이 전혀 없으신 평균 나이 일흔의 어르신들이 생애 처음으로 밴드에 도전해서 합주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때부터 차츰 지역의 직장인 밴드나 중고등학교 밴드 등과 연합하고 교류하며 공연에 참가했다. 삼사 년 전부터는 지역의 작은 공연 무대에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삼사만 원 가량의 출연료도 받으셨다. 통장에 입금된 그 적은 돈을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신다.

1기 단원이자 아직까지도 굳건히 드럼 연주를 맡고 계신, 최고령 서효숙(78) 어르신은 음악을 통해 편견을 깬다고 하셨다. 다운중후군 아이들을 찾아가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연주가 시작되자 음악에 맞춰 너무나도 신나게 몸을 흔들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불행한 삶을 견디고 있을 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그 아이들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깨달을 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셨다며 밴드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셨다.

음정 구분을 어려워하고 박자 감각도 엉망이고 악보를 볼 줄도 몰랐기에, 처음에는 전문 밴드 단원들이 일대일로 붙여 어르신들을 교습했다. 비록 아심차게 도전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매 기수에 고작 한두 분 정도가 단원으로 남았지만, 의정부문화원의 신념은 확고했다.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었다. 연습을 통해 단지 몇 곡을 기계적으로 소화하는 수준의 밴드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르신들 스스로 악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연주, 무대 설치, 음향기기 조작까지를 하지 않으면 밴드의 수명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우직함이 없었다면 9년간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밴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어르신밴드의 발전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겠다는 계획만큼은 단원의 잦은 이탈 등으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지난 시간은 분명 소중한 기억이다.

어르신밴드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문화원 직원 대부분이 공연 장소로 출동을 한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악기를 들어 드리거나 악기 설치를 도와드리지 않는다. 다 어르신들이 하신다. 누군가가 보면 예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를 풍경이다. 처음엔 어르신들도 얼마쯤은 서운해 하셨다. 그러나 문화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연 때마다 그 외의

1 2006 실버문화사랑축제(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다른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문화원 직원들의 정성을 보며, 어르신들은 서운함을 거두고 이 밴드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밴드구나 하는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밴드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이 밴드에 가지는 애정은 대단하다. 어지간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한여름을 빼고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차례 문화원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연습에 한 분도 빠지지 않는다.

의정부에서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왕복으로 4-5시간 가까운 거리를 매번 오가는 제성자(74) 어르신은 지난 겨울 연습에 참석하러 문화원 언덕길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다리에 철심까지 박으셨다. 그래도 밴드 연습이 너무 좋아서 먼 길을 마다않으신다.

집안의 유일한 대학생이던 형이 집에 가져온 기타를 호기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만지다가 줄을 끊어먹어 호되게 뺨을 맞은 기억이 있는, 밴드의 반장과 기타 연주를 맡고 계신 이정건(76) 어르신. 이정건 어르신은 밴드 가입 이전에는 컴퓨터로 영상을 찾아보며 독학으로 기타 연주를 조금씩 해나가셨다고 한다.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여장부 김웅희(67) 어르신. 김웅희 어르신은 일하다가도 연습 때만 되면 열 일 제치고 문화원으로 달려오신다.

이밖에도 고양시 노래자랑에 나가 1등을 한 보컬 젊은 언니 이옥지(72) 어르신. 역시 보컬인 소녀 같은 이명숙(68) 어르신. 단원 중 막내인 기타 연주자 박강천(65) 어르신. 베이스를 맡고 계신 묵직한 김갑선(75) 어르신. 건반을 맡고 계신 발랄한 이재희(71) 어르신.

'짚레꽃'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곡으로 "무조건 같까요?"라고 보컬 이옥지 어르신이 제안한다. 모두들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아 동의를 구하고는 바로 연주와 노래에 들어간다. 두 시간을 꽉 채운 연습 시간. 중간에 겨우 몇 분 목을 축이는 시간 말고는 저 정도면 젊은 사람도 체력이 따라줄까 싶을 정도로 맹렬하게 연습한다. 레퍼토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 곡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곡. 노래 제목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주가 시작된다. 얼마나 오래 호흡을 맞춰 왔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김갑선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 서로들 배려를 잘 할 것 같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향도 제각각이고. 함께하려면 결국 연주 연습과 같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밴드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밴드를 하면 화합을 배우게 되지요. 음악과 노래는 인생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예절과 존경이 저절로 와요. 음악 하는 사람들은 짜증을 잘 안 내요. 음악으로 모든 걸 푸니까요. 그리고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매초에 집중해야 하는 예술이에요, 음악은. 매순간에 집중하려다보면 고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울산, 강릉, 전주, 대전, 일산, 동탄 등. 제성자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열어 블로그에 차곡차곡 올려놓았던 그간의 공연 사진들을 찾아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해주시다. 축제 현장에서의 공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 스마트폰을 다루는 손길이 능숙하기 그지없다. 음악을 하시기 때문일까. 사실 최고령이신 일흔여덟의 서호숙 어르신은 나이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지 않고, 멀리서 드림 치는 모습으로만 봤다면 그 연세로 절대 보이지 않









는다. 얼마나 깨끗하고 활기찬지 여든이 가까워오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실제 나이에서 열 살 하고도 다섯 살은 더 빠도 될 것 같다. 그래도 속이 상한 건 옛날 같지 않은 박자감이란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최근 들어 종종 박자를 놓치곤 하신다는데 젊은 시절에 음악을 시작했다면 그야말로 한 가닥 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박자감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런 서효숙 어르신도 박자감 때문에 한때 의기소침 하시셨다고 한다. 놀라운 박자감 때문에 텔레비전 출연까지 하신 적 있으셨는데 상심이 커져서 밴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다른 단원들이 1기 단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상기시키며 설득을 한 끝에 이제는 다시 씩씩하게 밴드 활동을 하신다.

젊은 친구들 혹은 전문 밴드와 공연하면서 그들의 응원과 감탄, 박수로 자긍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약점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어르신 단원들은 연주 중에 틀리는 것에 예민하셨다. 그리고 호랑이 선생님이로 통하는 한 선생에게 처음부터 호되게 배우신 터라 틀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어르신밴드이기에 긴장감이 조금만 떨어져도 연주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원들 앞에서는 늘 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 선생은 말한다. 그렇다. 사실 어르신밴드의 연주 실력은 '인생의 황혼을 맞은 늦은 나이에 아무런 음악적 경험 없이 시작한'이라는 수식어를 제외하면 지나치게 평범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연주와 노래를 즐기신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 화합으로 늦은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얻고 계신 것이다.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 수백 수천 번 좌절하면서도 은근과 끈기로 포기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노력에 철저하게 숨은 조력자 노릇을 하며 마치 가족에게 그러하는 것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원의 노력과, 어르신밴드의 공연이 자신의 공연과 겹칠 때면 자신의 자리에 대타를 불러다 놓고 어르신밴드의 공연에 함께해주는 강사의 애정이 보태져 지금의 밴드가 탄생했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사업을 도와주는 강사가 조화로운 피드백을 주고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이 아름다운 밴드의 앞날에 드리워진 걱정의 그림자가 있다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뿐. 만일 그렇다고 해도 이 밴드의 어르신들은 인생의 변화와 자연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들을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신나게 출동하여 기쁨과 놀라움을 선물할 것이다.

전북  
전주  
문화원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  
어르신문화동아리

가

평균 연령 75세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주문화원의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 동아리는 지난 2012년 어르신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어르신문화학교로 3년간 지속해 오다가 2015년부터 동아리 모임으로 더욱 돈독하게 탭댄스와 만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보았다.

“〈파리의 미국인〉이라는 영화 봤어요?”  
노트북을 펼치자 어르신 중 한 분이 대뜸 묻는다.  
“어... 어...”  
고개를 가웃하며 말끝을 흐리자,  
“그, 왜 있잖어. 진 켈리 나오는 거 그 영화”  
라고 설명하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태기향(71) 어르신은 필자의 눈을 뵈히 바라보셨다.  
“그 영화, 정말 멋있거든. 거기에 나와, 이 춤. 그





래서 시작하게 됐지.”

탭댄스를 왜 시작했냐는 질문에 대한 태기향 어르신님의 대답은 명쾌했다.

“그 맛있는 춤을 내가 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뭘 망설여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죠.”

태기향 어르신에게 탭댄스는 늘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르신에게는 발재간을 부리면 툭툭툭툭 바닥에서 울리는 구두 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늘 씩하고 키 큰 서양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본 적도 많았다. 젊은 시절부터 춤에 재능이 없었기에 춤 잘 추는 사람들이 더욱 부러웠다. 그러던 중 노인복지회관에 갔다가 입구에 떡 하니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았다. “어르신 탭댄스 모집” 그 한 문장이 뇌리에 콕 박혔다. 그 길로 전주문화원에 달려왔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다. 친구 손을 잡아끌고 함께 등록을 마친 뒤 이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탭댄스를 배우고 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돼요. 진도를 못 따라가거든. 배울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면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없어.”

태기향 어르신은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에 빠지지 않고 달려오는 이유는 딱 하나. 진도에 뒤처지는 것이 죽도록 싫다.

“뭔가 하나를 하면 끝까지 가야해요. 내가 처녀 때 은행에 다녔거든. 그때 은행에 배달되어 온 신문을 몽땅 다 읽었지요. 신문 하나만 정독해도 되는데 성격상 그럴 수 없었지. 모든 종류의 신문을 완독하고 나서야 속이 후련했으니까.”

그랬던 성격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몸은 잘 따라주지 않지만 동작 하나 하나, 모두 익히고 싶다.

“아이고, 내가 일등인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다.”

인터뷰 도중 다른 어르신들이 속속 도착한다. 강의 시작 한 시간 전인데도 전주문화원은 벌써부터 시끌시끌하다. 일주일 만에 만난 어르신들은 소녀처럼 할 말이 많다.

“아니 오늘은 왜 그 양반 안 온다.”

누군가 말문을 열면

“아, 그 내가 전화했는데 오늘은 다른 데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러? 지난번에 콩 맛있다고 해서 싸왔는데 다음에 쥐야겠구만.”

문화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르신들은 서로의 안부를 챙기느라 바쁘다.

빠짐없이 출석하던 누군가 안보이면 부지런히 찾고 묻고 챙기면서 그렇게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친구가 됐다. 전주문화원이 아니었으면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어르신들은 3년 이상 이곳에서 탭댄스를 배우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든든한 사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속사정은 알만큼 안다.



“어르신은 어떻게 탭댄스를 시작했어요?”

“저 양반은...”

하면서 다른 어르신이 대신 답변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언젠가 아침마당에 탭댄스 추는 노인들이 나왔어요. 딱 봐도 내 또래거나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탭댄스를 열심히 추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나이가 지금 일흔 일곱인데 춤을 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출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던 차에 전주문화원에서 탭댄스 과정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혼자 찾아왔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줄 몰라.”

정순엽(74) 어르신은 한 눈에 봐도 환철한 키를 자랑하는 현대무용가 외모다.

“이 양반이 제일 잘 춰. 끼가 있나봐”

곁에 있던 누군가 틈새를 놓치지 않고 한 마디 거든다.

강의가 시작되자 능숙하게 신발부터 갈아 신는 모습이 전문가 못지않다. 구두를 갈아 신으니 눈빛부터 달라진다. 툭, 툭, 발바닥부터 발 뒷굽, 발 코를 차례로 바닥에 쳐보면서 어르신들은 나란히 줄을 섰다.

어르신들은 나무 판을 하나씩 차지하고 그 위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바닥을 치면 소리가 잘 안 올라와서 소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나무판을 깎 것. 공연장에 가도 바닥에서 소리가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 이 나무판은 공연 다닐 때마다 꼭 들고 다닌다.

강사가 입장하고 강의가 시작되자 연습실엔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가 퍼져 흐른다. 익숙하다는 듯 다리를 움직이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템포에 맞게 발을 움직이며 앞서 몸을 움직이는 강사의 몸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듯 눈빛 가득 열기를 담았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작 기억나세요?”

강사가 발짓을 해보이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새롭다.

“자, 천천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 두 쓰리, 원 두 쓰리”

강사의 발을 보면서 더듬더듬 어르신들은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움직였다. 어느 정도 동작이 몸에 익자 그제야 어르신들은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씩 기억나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 ‘10cm’가 누군지 몰라도 좋다. 몸이 신나니 정신도 집중된다.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도 사라지고 이 시간엔 춤과 나 밖에 없다.

한 음악이 끝나자 송대관의 ‘네 박자’가 흐른다. “쿵 짹, 쿵 짹. 쿵짜라라 쿵 짹. 네 박자 속에~” 익숙한 음악이 흐르자 어르신들은 허리부터 쪽 편다. 이번엔 자신 있는 곡이다. 처음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 반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4년을 연습한 곡이다. 음악이 나오면 이젠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만큼 몸에 익은 곡이기에 식은 죽 먹기다.

“자, 다음 곡 가겠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곡이 이어지지만 어르신들은 지친 기색도 없다. 시크릿의 ‘별빛달빛’이 시작되자 음악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스텝을 밟는 어르신들은 이번에도 시크릿에는 관심이 없지만 들썹 들썹 마냥 신이 난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잡생각도 안 나고.”

노래 가사는 안 들리지만, 가수 이름도 모르지만 그냥 신나게 멜로디에 몸을 맡기면서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탭댄스를 추면서 가장 좋은 점은 잡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춤을 추는 동안에는 춤과 나의 물아일체다. 내가 춤



이고 춤이 내가 되는 시간. 이 시간에는 나이도 있고, 아침나절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 통장 잔고도 있고, 낼지 못한 빨래도 있다. 정순엽 어르신은 자신에게 이런 흥과 끼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다.

“옛날에는 여자를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나와 보니까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하더라고.”

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합창반에 참여하고 있는 정순엽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행복하다. 어쩐지 몸짓부터 다르다. 맨 앞줄에 서서 제일 열심히 탭댄스를 따라 추시더니 이내 얼굴에 자신감이 돈다.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 동아리 팀은 벌써 무대에도 여러 번 오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전국 대회에도 나갔다. 전북문화원축제에 참가해 전주의 대표 명소인 한옥마을에서 무대를 선보일 때는 어르신 모두가 탭댄스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기 전이었다. 첫 무대니만큼 수강생과 강사 선생님 모두 떨기는 마찬가지였다. 강사 선생님이 맨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도 안심이 되지는 않았다.

“첫 무대라 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려도 비웃겠나? 노인들이 춤춘다는데 누가 손가락질 하겠나?’ 그런 생각으로 무대에 오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무대에서 춤추고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할 때 ‘아, 무대의 맛이라는 게 있구나.’ 칠십 평생 처음 깨달았단니까. 마치 다시 사는 것 같았어.”

첫 무대는 참여했던 모든 어르신들에게 첫사랑처럼 두근거리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동아리 어르신 중에 몇 분은 전주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문화나눔봉사단에 참여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주로 요양원이나 축제 등의 야외무대에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데 요양원에 가면 보통 무대에 설 때보다 마음이 더욱 물렁해진다.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어 누워서 공연을 감상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분들이 결코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 회원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오히려 어린 분들도 많다.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펼칠 때 그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부족함 많은 공연이지만 정말 잘 봤다면 공연이 끝나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다.

“기쁘죠. 어디서 나를 그렇게 반겨주겠어요. 손도 잡아주시고, 또 언제 오냐고 기다려주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좋아요. 이 나이에 나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그게 다 이 탭댄스 덕분이지요.”

탭댄스를 비롯한 민요, 뮤지컬, 연기 수업까지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있던 유행(73) 어르신은 벌써부터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다.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남편 일찍 떠나고, 자식 둘은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애들이 서울로 모셔간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는데 낯선 곳에 왜 가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매일같이 배우고 웃고 사람 만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이 좋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길까 기대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강의가 끝나고 전주문화원의 문을 나서는 유행 어르신의 발걸음이 바쁘다.

쿵쿵 어르신들의 바쁜 발자국은 어떤 날은 탭댄스가 되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가슴을 만져주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날은 살아온 긴 시간을 푹푹 눌러주는 기억이 된다.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치는 수요일이 매일 기다려진다.

## 경남 거창 문화원

실버청춘연극단 양성 및 공연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

## 2

거창청춘실버연극단은 2005년 4월 창단 후 2006년부터 거창문화원에서 본격적인 연극교실을 열었다. 만 10년이 흘렀고, 그 세월만큼 단원들 역시 나이를 먹었지만 무대 위의 그들은 만년 청춘이다. 마침 거창을 방문한 날에는 9월에 있을 초청공연을 준비하며 단원들 모두가 맹연습 중이었다. 어르신들이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물개박수가 절로 터져 나왔다.

다른 지역에도 실버연극단이 있지만 거창청춘실버연극단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10년째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외에도 단극이 아닌 정극에 도전한다는 점이다. 대구예술대학 장효진 교수의 지도를 받아 기존 작품을 각색해서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초창기의 작품인 「변학도의 생일잔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8편의 작품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 울지 마세요」는 가족극으로서 장









기공연을 펼치며 전국에서 열띤 환호를 받았다. 물론 이런 활동은 그간 거창에서 국제연극제가 꾸준히 개최(올해 27회째)되고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거창문화원의 지원과 단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이다. 극단을 이끌어 가는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창성(77) 어르신은 소년처럼 씩씩한 목소리로 연극에 대한 열정을 뽐어낸다.

“거창문화원 백승용 사무국장님이 초창기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었어요. 그이는 아이디어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몇 해 전 ‘나이 없는 날’을 맞아 서울 흥익대 인근에서 공연을 했던 때가 기억나네요. 극중 등장하는 집 세트의 사이즈가 꽤 커서 큰 짐칸이 있는 전세버스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 백 국장이 무대 세트의 크기를 철저히 계산해서 버스를 구했어요. 서울 도착해서는 버스 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 꽤 먼 거리를 소품과 세트, 의상 등을 손수 들고 움직였어요. 그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데 우리가 같이 안 할 도리가 있나요? 연극이란 장르는 의욕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배우지만 우리 스스로 ‘노가다’를 자처해요. 우리 아직 할 만하다는 자부심이 그 속에 있어요.”

물론 극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제 아내가 처음엔 집안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돈다고 걱정했어요. 특히 여자 단원들이 많은데 남편이 덜컥 회장까지 맡으니 은근히 질투도 했었지요. (웃음) 제가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긴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희곡 쓰고 연출도 맡으면서 연극의 재미에 푹 빠졌었던 거든요. 정년퇴임 후 다시금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연극교실이 생겨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연극은 마음이 청춘이러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몸은 비록 황혼이지만 마음은 이팔청춘이에요!”

거창청춘실버연극단의 공식 멤버는 30명, 그 중 실제 연습에 자주 나오는 인원이 약 17명이다. 신창성 어르신은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연극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갖은 핑계를 대며 망설이는 분을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체면 때문에 마음의 문을 못 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만 버려도 우리 삶이 참 즐거워지잖아요. 누가 뭐라 하건 내가 즐길 수 있다면 노년에도 도전해야지요.”  
그러면서 평소 삶의 철학을 넉넉히 들려주기도 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참을걸’, ‘베를걸’, ‘즐길걸.’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늦깎이가 되어서도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더 후회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창청춘실버연극단에서는 65세부터, 최고령인 전순연(83)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나이 때문에 표현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초창기엔 남녀유별의 생각 때문에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처음엔 배우끼리 손잡는 것 하나도 부끄러워했

고, 분량이 많은 배역을 서로 맡으려고 하거나 악역을 피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연극을 배우면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욕심을 부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더군다나 연극은 체력이 밀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르신들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농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습이 더딘 경우도 많고, 대사를 까먹는 건 예삿일이다. 그래도 신기한 점은 본무대에 서면 모두들 정신력으로 버티고, 마침내 해내고 만다. 앞에 사람이 대사를 까먹어도 뒷사람이 바로 자신의 대사를 치고 나가는 노하우도 조금씩 생겼다.

백승용 사무국장은 거창청춘실버연극단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앞으로 걸어갈 극단의 미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극이라는 장르가 인간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르적 특수성이 10년 간 우리를 버티게 한 걸지도 모르죠. 연초마다 새 멤버를 모집하지만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여러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오래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장수 연극을 기획하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숙달된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고, 연극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여름 한철 동안에는 단원들끼리 외부 공연도 자주 보러 다닙니다. 그만큼 배움도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라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작은 연극, 인형극 등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또 거창의 자랑인 ‘수승대’를 배경으로 한 희곡을 완성해 지역의 영구 프로젝트로 안착시키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거창청춘실버연극단 지도를 맡고 있는 장효진 교수는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공연 문화를



1 넓은 화강암 암반으로 이루어진 계곡. 명승 제53호.



일구는 게 늘 꿈이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몸소 발품을 팔아가며 대구 인근 지역의 몇몇 극단에서 연극 지도를 하고 있다.

“삼십대 초반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해 왔고 어느덧 만 10년이 됐네요. 거창 어르신들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별별 떠셨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저를 만만히 보시는 것 같아요. 웬만한 호통에는 꿈쩍도 안 하세요. (웃음) 거창청춘실버연극단과는 창립 때부터 함께했기에 애정이 남다르지요. 실버연극단은 바깥 활동을 할 형편이 아닌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場)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연극을 통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 소속감을 확인 하시지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연극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가는 걸 장 교수는 똑똑히 보아왔다.

“연극은 제한된 시간에서 100퍼센트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큰 장르입니다.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연극을 통해 환기시킬 수 있고, 어르신들은 공연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세요. 연극은 총체적 예술이자 교육 매개체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거창 고학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서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연할 기회가 있었다. 마땅한 분장실도 없어서 단원들은 부라부라 버스 안에서 분장하고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관객으로 온 한 어르신이,

“내랑 나이도 비슷한 거 같은데 우찌 외워서 다 합니까. 대단합니다.”

라며 감동에 겨워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연극 보는데 내 인생이 막 지나갑디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장효진 교수는 그 순간의 떨림을 잊지 못했다.

“그분은 ‘파노라마’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을 거예요. 관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장효진 교수에겐 거창청춘실버연극단 단원들이 대한민국 1등이다.

“작품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한 식구로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더 크지요. ‘끝까지 간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항상 같이 꾸리고 공유합니다. 세대를 넘어 행복한 삶의 가치를 함께 지향할 수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가 엄지를 추켜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고연령의 단원들이 장장 1시간 30분짜리 공연을 하는 곳은 전무후무하다. 거창청춘실버연극단에서는 절대 대충이 없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연극을 한다.

장효진 교수와의 대화가 끝나고 곧장 연극 연습이 시작됐다. 요즘 이들이 맹연습 중인 「경로당 폰팅 사건」은 무척 흥미로운 줄거리다.

고스톱과 내기 장기판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로당에 어느 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화요금 청구서가 날아든다. 거금의 고지서는 다름 아닌 ‘폰팅’ 때문임을 알게 되고, 범인을 찾기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추리 작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해체된 현대사회의 노년 세대 풍경을 풍자하면서, 끊이지 않는 웃음과 공감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러닝 타임이 1시간 30분이니 결코 짧지 않은 공연이다. 한창 농번기임에도 극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빠짐없이 나와 연습에 몰입한다. 보는 내내 눈물과 웃음을 번갈아가며 폭 빠질 정도로 극은 재미



있었다.

대사를 미처 못 외운 단원은 대본을 들고 본인의 대사를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가 하면, 동선이나 타이밍이 엇갈리는 실수를 연발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카랑카랑한 장효진 교수의 호통이 날아든다. 누군가는 배꼽을 잡고 웃고, 누군가는 한바탕 눈물을 쏟기도 하고, 누군가는 “얼썬!” 추임새를 외치기도 하면서 극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간다.

연습이 끝나고 둘러앉은 열댓 명의 단원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다. 이 극단의 최고령 단원인 전순연 어르신은 장효진 교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한다.

“장 교수님에게 큰 배움을 받았어요. 연극을 시작하면서 열아홉 살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할까. 누군가는 ‘늙은이가 무슨 연극이야’ 하고 흥분지 몰라도 나는 무척 즐거워요. 삶의 보람을 크게 느껴요. 서울에 사는 큰 딸도 우리가 연극하는 걸 보고는 ‘엄마 젊게 사시는 거 보니 행복해요.’ 하고 말해줬어요. 늦게나마 연극을 시작한 거, 어찌면 내 인생 최고로 잘한 일 같아요.”

2003년 담낭암 수술 후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문화원에 오게 됐다는 한 어르신은 연극이 가진 ‘치유의 힘’을 경험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극단이 만들어진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무대에 서면 첫 사랑에 빠진 아이처럼 심장이 뛰는 거창청춘실버연극단 어르신들. 이들의 제2막 인생은 연극을 통해 찬란히도 꽃피고 있다.









# 문화로 물들었다.

| 울산 남구문화원

가

!! 충북 청원문화원

| 제주문화원

## 울산 남구 문화원

동심의 세계로 차용목공예 전통연 봉사단  
어르신문화동아리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공동체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민속 신앙을 이어왔다. '숫대'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상징물 중 하나이다. 마을사람들은 온 마음을 모아 가뭄이나 질병, 재앙을 막아주는 의미를 갖들여 숫대를 세우곤 하였다. 지금은 아파트며 상업 건물들이 높게 솟아오르고 숫대는 보기 드물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면서 보기 힘들어진 것이 있다면 연날리기도 있다. 우리 민족이 연을 공중에 띄우며 놀았지만 연은 과거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었을 만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기도 하다. 전쟁에서도 쓰였고, 정월대보름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연을 날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쩐지 이와 같은 풍경은 요새 들어 더더욱 보기 힘들어졌다. 먹고 살기 바빠지면서, 민족의 얼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아름다운 유산을 잊고 사는 것인지도 모







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잊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울산 남구문화원에는 잊혀가는 솓대를 복원하고 목공예로 재현해 내는 어르신들이 있고, 전통 연을 제작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안에 우리가 잠시 잊었던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울산 남구문화원에 자리 잡은 작업실엔 뿌연 톱밥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잊고 있던 솓대가 작은 모양으로 복원 되어 있었고, 나무를 소재로 한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었다.

현재진행형, 이곳의 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15명 남짓의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서툰 톱질과 대패질로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었다가, 지금은 섬세하고 견고한 목공예 작품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모이게 된 처음목공예 어르신 봉사단은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모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퇴직한 후 갑자기 여유가 생긴 어르신들은 처음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할 지 잘 몰랐다고 말한다. 남들처럼 노인정에 가보기도 하였지만 재미가 없었다. 이왕이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취미 생활을 하면 어떨까 했던 것이 지금의 작업실로 모이게 되었다. 학원처럼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일상까지 침투하게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오죽 烏竹'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새카만 대나무를 주재료로 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등산에 가거나, 어디 놀러갔을 때 보게 되는 재료를 직접 공수해온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나무토막이나 재활용품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준비는 항상 바쁘기도 하다. 그렇게 오죽으로 만든 작품으로는 호신용 호각이 있고 솓대가 있다. 호신용 호각은 각종 문화제나 축제 때 잘 팔리는 상품이다.

오죽을 구하면 최소 6~7개월 말린 후 재단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재단한 오죽에 나팔을 만들고, 나무를 끼워 소리를 내게 한 다음, 목줄을 걸 철사를 박고 불로 그을려 윤기를 내면, 호신용 호각이 만들어진다. 또한 솓대를 축소해 만든 목공예 작품은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했던 의미가 깃들어 있

어 작품으로도 팔리고 있다. 울산의 처용문화제, 고래축제 등 유명한 행사에서 부스를 잡고 전시 및 판매를 한 이래로, 어르신들의 목공예 작품은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명물이 되었다. 게다가 여러 박물관, 해외 판매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작은 결실이 큰 가치로 커져가고 있었다.

또한 목공예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에게 솥대 제작 체험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곳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도 이바지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즐길수록 그 의미는 배로 커진다는 것을 어르신들은 알고 있었다. 목공예 작품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하신 한 어르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료로써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다.

“제 2의 인생에 있어 일자리를 얻은 것 같아.”

함께 전통을 나누고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만들어가는 기분이 든다고 벅찬 소감을 말씀하셨다. 나무의 살결에서 새로운 숨을 느낀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한 달을, 일 년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셨다.

삶의 현장처럼 남겨져 있는 작업실엔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고, 만들어진 목공예 작품들은 잊힌 전통에 새로운 의미를 새기고 다시 태어나 있었다. 햇살 사이로 톱밥 흩날리는 모습, 별 볼 일 없던 나무토막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곳에는 굳은살 베긴 어르신들의 나이에겐 끊임없이 감기고 있다.

김용선(92) 어르신은 어김없이 연을 만들고 계신다. 작업실에 빼곡하게 걸린 꼬리연, 가오리연, 방패연들은 날 준비를 마치고 의기양양해 보였다. 아직도 정정하신 모습으로 새로운 연을 만들고 계셨던 어르신은 연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계셨다.

“요즘 사람들은 연을 날리지 않지만, 소망하는 바는 예전과 같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연을 만들지.”

어릴 적, 소원을 빌며 연을 날려 보내고, 각자 아로새긴 새해 소망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열레를 힘차게 굴리던 기억, 어르신은 아직 그 의미를 간직하고 계셨다. 국군 장교의 삶을 마친 어르신은 얼마 후 오갈 곳이 없게 되어 이곳 남구 문화원에서 지내게 되셨다. 그때부터 연에 대해 공부하고, 연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셨다. 연마다 각자 의미가 다 달랐다.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연, 울산 남구의 상징 고래가 그려진 연, 그리고 요즘 어린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뽀로로가 그려진 연 등 다양하고 화려했다. 다시 연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온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매년 정초에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남구 공업탑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있다. 귀퉁이 먼지로 가득했던 횡한 지하보도는 멋진 갤러리로 변신하여 연의 비상을 도왔다. 쉽게 지나쳤던 공간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열레에 각이 많을수록 연을 더 멀리, 높게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비교적 만들기 쉬운 가오리연을 상





세한 명칭과 함께 따라 만들 수 있게 하는 역할에는 김용선 어른신의 역할이 크다. 누구나 한 번 짬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던 시절, 연 날리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연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도심에서 연을 마음껏 날릴 수 있을 만한 곳도 찾기 어려워졌다. 방학을 이용해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어른신은 연에 색을 칠해가며 자신만의 연을 갖추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더 멀리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너무 멀리 와버린 시간을 생각한다. 어른신의 고향은 함경도, 촘촘하게 그려 넣은 한반도가 연을 타고 출렁거릴 때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먼 곳을

향해 열레를 돌리는 어른신이 있다. 언젠가 연은 닿지 않았던 땅에 닿을 지도 모르겠다. 그 소망이 팽팽해진 실을 타고 여전히 지금도 날고 있다.

무더운 여름날, 작업실 한 편에서 어른신은 다시 연을 만들기 시작하신다. '송액연복(送厄迎福)'이라고 적힌 글자가 막 완성되어가고 있다. 나쁜 액운은 멀리 날려 보내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의 이 글귀는 어른신이 연을 만들 때마다 새기는 글이라고 하였다. 더운 여름 창문을 열면 어른신의 소망을 품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을 연을 상상해 본다. 어른신이 연에 새겨가는 글자들이, 언젠가는 먼 소망으로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올해로 48년이 된 울산 남구문화원 건물엔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 의미들을 손수 만드는 어른신들이 있다. 투박하지만 이뤄나가는 목공예와 연은 그 어느 누구의 작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른신들이 있어 우리가 추억하는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무료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신 봉사단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펼쳤고 그 위로 값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모이면 이제는 건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들 하신다. 편찮으셔서 오지 못하는 어른신도 있고,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음을 매일 느끼신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어른신들의 온기와 열정은 한 곳에 쏠려 있다. 민족의 얼, 우리 민족이 품으며 살아왔던 '얼'이야말로 지금을 있게 만들어준 커다란 원동력임엔 틀림없다.

다시 민족의 얼을 찾아 열레를 만들고 오죽을 재단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전통과 어른신들의 새로운 삶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 충북 청원 문화원

청원 갯바치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가 !

청주시 외곽을 둘러싼 조그만 농촌도시 청원. 취재 하루 전에 청원에 도착해서 미동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적한 평일 오후였지만 등산객이 매우 적고 오가는 차량도 많지 않아 산을 전부 빌린 것 같은 기분으로 혼자서 걸었다. 걷다가 힘이 들면 커다란 굴참나무 아래 앉아서 내일 취재할 <청원 갯바치>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다. 사진 속에는 가족으로 만든 파우치와 브로치, 수첩과 키홀더, 그리고 통가죽 가방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주변에는 <청원갯바치>의 어머니 회원들이 밝게 웃으며 서 계신다.

<청원갯바치>는 가족공예를 하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문화나눔봉사단이다. 이른 아침, 청원문화원 입구에서 커다란 가족원단을 들고 가는 어르신을 만나 자연스럽게 강좌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미 문화원에 나와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 가족을 자르고 미리 준비한 도안을 꼼꼼히 옮겨 그리느라 강좌실 한쪽이 분주하다.







“서울에서 온 기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고서 어르신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미리 준비한 인터뷰 질문들을 살펴보다가 책상 앞에 놓인 열쇠고리와 필통,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갑을 보며 오묘한 색감에 매료되었다. 전부 가족으로 만든 거다. 색이 곱고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가족이 어르신들 손에서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



하고 있었다.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쉬운데 하나 만들어 봐요.”

취미로 가족공예를 배우는 분들이 아닐까 한 예상이 빗나가고 너무 단순한 질문들만 준비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질문이 적힌 수첩을 덮었다.

“저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조그만 열쇠고리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무늬가 정교하고 염색이 잘 된 작품들이다. 강좌실 책상에 꺼내놓은 필통과 지갑, 조그만 골무와 연장통, 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족으로 만

들어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예품들이었다.

어르신들 역시 자기가 만든 작품에 열정과 자부심이 넘친다. 전국을 돌며 다양한 체험행사를 주관하고 지역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예체험 경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제천에서 개최된 가족 힐링캠프를 비롯해 충북문화관, 청원생명축제, 보은 속리축제, 동대문구 청룡문화제 등 전국의 축제장에서 가족공예 체험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경험이 청원갯바치를 매끈하게 가공된 가죽처럼 더욱 빛내주고 있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서 팔을 건어붙이고 올해 5년째 활동하시는 양광옥(63) 어르신께 특별 지도를 받았다.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요?”

“음, 저는 노란색이 예뻐 거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가죽에 노란색을 칠할 거예요. 아니지! 너무 세게 찍지 말고 톡톡 찍어 발라야죠. 처음엔 흐리게 시작해서 무늬에 안 들어가게. 그렇지! 물감이 마르고 나면 여러 번 다시 덧칠을 할 거예요. 그래야 깊은 색감이 나오.”

설명을 들으니 간단해보였지만 보기만큼 또 쉽지가 않다.

“아, 이거 보기보다 훨씬 어렵네요.”

“그래도 기자님이 나보다는 잘 하시네?”

맞은편에 앉은 어르신 한 분이 청원갯바치에 처음 오셨다며 함께 배우자고 했다.

“어머니,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저는 청원문화원에서 무용반도 배우고 가야금도 배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가족공예를 하고 싶더라고요. 청원문화원에 매일 출근하죠, 하하.”

말씀하시는 어르신 얼굴에 이제 막 칠한 벚꽃 잎처럼 발그레 화색이 돌았다. 군데군데 얼룩이 생겨서 민망해 할 때마다 베테랑이신 양광옥 어르신께서 능숙한 솜씨로 덧칠을 해주신다.

“제 실력이 아까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리다가 부업을 해야겠어요.”

가끔 낙살을 부릴 때면 크게 웃어주시진 않지만 무뎛뎛하면서도 처음 온 기자를 내심 챙겨주는 푸근한 마음에 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문화원에는 화요일마다 오세요?”

양광옥 어르신께 물었다.

“네, 매주 화요일에 오는데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을 와요. 열쇠 고리나 팔찌는 간단하지만 지갑이나 가방은 수일이 걸리거든요.”

“가방을 만드신다고요?”

“그럼요, 가방도 만들죠.”

옆에서 조용히 지갑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던 유미자(64) 어르신께서 가방을 보여주신다. “굉장하네요. 저는 명품가방을 사신 줄 알았어요.”

“아니예요, 갯바치 회원 모두가 본인들이 직접 만든 가방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와,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가방이네요. 색이 어쩔 이리 고울까.”

가방을 찌느라 카메라 셔터를 분주히 눌러뒀지만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 직접 만든 가죽가방 이상으로 즐겁게 작업을 하시던 어머니들의 고운 얼굴과 두 손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가족공예 시작하고 나서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유미자 어르신께 바짝 다가가서 물었다.

“음, 제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걸 선물할 수 있어서 기뻐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맛장구를 쳤다.

“맛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원두커피를 마시는 취미가 생겼는데 당신이 가장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취미가 없어서 가사만 도맡느라 힘들고 지루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커피에 매료되셔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세요.”

“음, 가족가방을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집에 가서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어요.”

“가족공예에 푹 빠지셨네요?”

“네, 하나 만들고 나면 뿌듯해요. 여자들은 특히 가방을 보면 이것도 들어보고 싶고 저것도 들어보고 싶은데 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좋죠. 특히 누군가에게 제가 직접 만든 가방을 선물할 때 가장 보람이 있어요.”

그때 청원갯바치의 회장인 구희순(65) 어르신께서 가족으로 만든 팔찌를 건네주셨다.

“하나는 우리 손주 주려고 만든 거고, 이걸 크니까 기자님이 하세요.”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나도 왔는데 나는 안 주고 남자만 주네.”

빨간색과 보라색 물감을 입힌 팔찌를 차고 기뻐서 자랑을 하는데 옆에 계시던 어머니 한 분께서 질투 어린 농담을 건네신다. 지루할 틈도 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회장님, 청원갯바치 활동 정말 오래 하셨겠네요. 가족공예 하시기 전에는 따로 취미 없으셨어요?”

“일만 하느라…… 무슨 취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족공예를 하니깐 좋아요.”

“주변에서 특히 누가 좋아하세요?”

“아들하고 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집이 머니까 가끔 데려다주고 그래요. 손주한테 주려고 이렇게 팔찌도 만들었어요.”

훈훈한 강좌실 분위기 못지않게 이를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 어르신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적극 지원을 함은 물론 매회 강좌마다

다 함께 참여하시는 청원문화원의 광명희 사무국장님이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청원갯바치>가 다양한 단체와 지역 축제에서 활동을 했죠?”

“네, 정말 많은 곳에서 활동했어요. 가족공예가 어디든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서울 동대문구 청룡문화제에서 전시체험을 했고 초정리행사장, 청원생명 축제장 등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청원갯바치> 회원들께서도 열의를 갖고 하시고 실제로 호응이 무척 좋아요.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직업병이 생길 정도죠.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이 늘고 다양한 것을 만드니까…… 점점 열의가 생겨서 손목에 터널증후군이 생기기도 해서 그게 걱정이예요. 작품들이 모두 근사하죠? 가족공예를 취미로 하시지만 작품을 보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라 할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 문화나눔봉사단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문화원이 아닌 부용면에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모인 어르신이 약 40명 정도 되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운영을 하는 데에 차질이 생겼어요. 인원은 많은데 봉사단으로 조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에 장소를 문화원으로 옮겨 다시 시작했죠. 문화나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활동을 한 건 2011년이예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청원 내 어르신과 예비 실버 2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원갯바치〉가 서울에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통가죽공예 작품 전시를 했고 동대문 용두공원에서 청룡문화제 행사 전시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청원문화원 내에는 가죽공예만이 아니라 서예, 사군자, 미술, 사진 등 다른 문화봉사단이 많아요. 봉사활동을 나갈 때 갯바치 단독으로 가죽 공예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절교육 다도체험이나 무용단, 민요반 봉사단 등과 함께 공연까지 접목시켜서 복합 문화 체험을 하는 거죠. 초중고, 유치원, 다문화여성 대상도 체험을 하면 반응이 꽤 좋아요.”

“지역사회랑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네요?”

“아이부터 어르신, 다문화계층까지 전 계층이 연계가 되는 거죠.”

“국장님, 저도 손으로 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꼭 배워보고 싶어요.”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국장님은 가죽공예 강좌를 하는 내내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멋진 작품을 고민하고 서로 도우며 봉사단을 화기애애하게 이끌고 계셨다. 강좌가 끝나고 짐을 싸는데 국장님께서 멀리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셨다. 강좌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청원갯바치〉의 어머니들과 함께 둘러앉아 자장면을 먹었다.

“청원은 음식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곳에 미리 와서 자장면을 사먹었는데 맛이 기똥차더라고요.”

“기자님, 이것도 좀 먹어봐요.”

한 어머니께서 직접 찌운 옥수수와 황도를 덜어주셨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공연이 있을 때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한 뒤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며 사진을 구경하는데 가죽가방 못지않게 〈청원갯바치〉 어머니들의 조그만 손이 오래 눈에 머물렀다. 오랜 세월을 거듭하며 거칠고 주름이 졌지만 그 손은 분명 가죽을 두드려 멋진 무늬를 새기는, 그야말로 진짜 '명품'이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면 제주문화원에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든다. 평균 연령이 65~70세인 어르신들이 씩씩하게 계단을 오른다. 살짝 상기된 표정이 사뭇 청년처럼 보인다. 2015년 가을에는 처음으로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주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들을 주제별로 모아 4개의 조로 발표를 한다. 어르신들이 각각의 주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어느 젊은 전문가 못지않게 진지하게 시연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작성한 것이라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쉽게 설명을 한다. 그 모습들은 마치 일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연상시킬 만큼 뜨겁고 젊었다. 도대체 어떻게 주변인이 아닌 이야기의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제주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은,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

고 쑥스러운 미소를 띠운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사용하던 도구가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고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나이 들어 어디엔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전 힘들기도 하고 겁나기도 했던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용했던 제주도 특유의 물건들(연갑, 나막신, 시루, 유건, 족뚫, 꿩고, 구덕 등)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냐고 했다. 이제 황혼의 언덕에서 서서히 뒷 배경으로 물러났다고 생각한 어르신들은 자신감도 없고 엄두도 안나고, 심지어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다고 한다. 문화원에서는 그저 교양을 쌓거나 강의를 듣고 체험을 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어르신들에게, 직접 기획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라고 하니, 거부 반응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들이 사용했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기록일 수도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4~5명이 조를 이루어 제주도 생활 도구 이야기를 찾아 떠나게 되었다.

현명철(68) 어르신은 생활도구를 몸소 사용해 본다.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워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한다. 처음 조사차 자료를 찾아보니 제주에서 쓰던 생활 도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물건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찮게 여겼던 생활 도구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어 어디를 가더라도 자세하게 보게 된다고 했다.

현명철 어르신도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시큰둥했다고 한다. 박물관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물건들은 이미 전시되어 있는데, 또한 젊은 학자들이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책으로 내는데, 우리 같은 노인네가 뭘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속된 설득에 조사와 취재를 하다 보니 박물관에 있는 생활도구에서 없는 것들이 보였다. 바로 도구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현명철 어르신은 생활도구를 쓰던 분들이 사라진다면 바로 이야기가 사라지겠다고 느꼈고, 마음을 돌려 본격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생활도구와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문 : 어디다 덧을 놓고 미끼 어떻게 썼수꽂?

답 : 집이 가까운 우영팟 오시록 헌디에 주로 놓았고 난드르에는 농친 안해서, 난드르에도 족제비 이섯주마는 그런딘 잘 안 노코, 쥘이가 댕기는 곳에 경허고 '집근처엔 아맹해도 먹을게 이시난 족제비가 얼러 댕기는거 봐져, 니겍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 대강이영 쥘이를 많이 썼고 80%는 쥘이를 써서, 마을 근처 대왓구석진 고망에 놓는디 닭이 족뚫에 들 때도 이시난 그땐 때도 쳐 맛곡 혼나고 해서, 담어머미로

죽덜이 잘 당기난 오시록 헌 삼각형 진디 팽팽허게 멩그랑 담부짱 노매, 훗썰이라도 댓이 들러져 불민 잘 눌러지지 안허영 도망쳐볼주게, 짱이 당길만 헌디 강 노곡, 달망 죽거디나 죽대이신 밧디가 잘 당기긴 허여, 비 오젠 허는 날이 죽덜은 이동허난 다음날은 돌아파사 경 안허민 놉 태여 가부러,'

- 사냥도구 '죽덜'에 대한 한림읍 명월리 어르신들의 구술 중에서

제주의 옛 사냥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어르신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만드는 과정을 촬영하며, 시연을 해보고 기록한 내용 중 일부이다. 제주도 말투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제주도민이 아니라면, 더구나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전통생활문화 지도만들기》 프로그램의 값진 성과가 이것이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듣는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은 어르신들이 아니면 고스란히 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냥 기술과 사냥도구들은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이 다른 것이다. 사냥 할 때의 마음, 사냥도구를 만들 때의 마음은, 어느 박물관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며 삶의 역사이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도구들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시루를 직접 썼던 기억이 나는 게 정월보름 납읍 풍속으로 방살이떡(방살이떡)이라고 좁쌀 한 홉씩 친구들이 모아 방앗간에 가서 가루를 내어 한 층 씩 좁쌀 가루를 뿌려 각 층에 자기 이름을 쓰고 떡을 만들었다. 땀감은 집에 것을 쓰지 못하고 도둑질을 해다 썼다. 솔나무 땀감 등을 구해다가 썼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중요한 땀감은 다 숨겨버렸다. 가져가도 될 만한 것은 내놓아 가져가게 배려해주었다. 옥을 먹어야 액막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땀감을 구하면서 일부러 옥을 먹으려고 하기도 했다. 떡을 해놓으면 층별로 익는 정도가 달라 어느 층은 설익고 어느 층은 잘 익고 했다. 익는 정도를 보고 금년의 운을 짐작해 보기도 했다.

- 제주도 화산토로 만든 '시루'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생활도구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주의 흙으로 시루를 만들어 떡을 해먹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억 저 너머에 있던 추억들을 끄집어내는 즐거운 과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기록하는 것이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중심이 점점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의 삶이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면서 가끔 지방 소도시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하고 시골의 삶을 동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지 않고 동경과 감상만으

1 문 : 어디에다 땀을 놓고 미끼는 어떤 것을 썼나요?

답 : 집 가까운 텃밭 구석지고 조용한 곳에 주로 놓았고, 탁 트인 들에는 설치하지 않았지. 탁 트인 들에도 죽제비가 있었지만 그런 곳에는 잘 놓지 않았고, 쥐가 다니는 곳에 놓았고, 집 근처에는 아무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죽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지. 미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생선 머리랑 쥐를 많이 썼고, 80%는 쥐를 썼지. 마을 근처 대나무밭 구석진 구멍에 놓는데, 닭이 죽제비 땀에 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매도 많이 맞기도 했고 혼도 나고 그랬지. 담장 옆으로 죽제비들이 잘 다녔기 때문에 구석지고 조용한, 삼각이 진 곳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담장에 바짝 붙여서 설치했지. 조금이라도 땀이 위로 떠버리면 잘 눌러지지 않아서 (죽제비가) 도망쳐 버리지. 쥐가 다닐 만 한 곳에 가서 놓고, 담장 곁이나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밭이 (죽제비가) 잘 다니는 했지. 비가 오려고 하는 날이 죽제비가 (잘) 이동하니까 다음날은 (땀을 설치한 곳을) 돌아다녀 봐야했어. 그렇게 안하면 남들이 (땀에 걸린 죽제비를) 훔쳐 가버려.



로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제주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통생활문화 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은 매년 새로운 성과물을 내고 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새로운 주제의 생활도구들로 행복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만 어르신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다. 당신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가다보니 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역사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런 노력들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제주문화원 《전통생활문화 지도 만들기》는 사라져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르신 스스로 공부하며 찾아가는 과정이다. 제주도에서 쓰는 생활도구를 통해, 옛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이해하며, 제주도만의 생활



도구를 알리려 애쓰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가 삶의 주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하고 보니 하는 일 없이 소비만 하는 노인으로 비춰질까 늘 고민하던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소중한 도구와 그에 얽힌 이야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어르신들은 제주도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생활도구를 찾아 오늘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물건들이 결국은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막고,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미래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전문가 못지않게 기록하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청년들의 즐거운 향해를 보는 듯 했다. 지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지도는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제주문화원과 제주도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도인 <전통생활문화 지도만들기>는 계속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다.



부록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능동적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방문화원 및 문화기반시설 중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문화재능기부활동·문화동아리활동·어르신문화축제 등 어르신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193개 지방문화원·14개 시도문화원연합회·55개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43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단위사업 소개

::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 ; 어르신들을 지역의 문화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지원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	서울	강동문화원	실버 No! 골드 Yes! 색소폰 연주단
2	서울	강서문화원	은빛너울 경기민요
3	서울	관악문화원	전통공예술타이같이놀자
4	서울	광진문화원	신나는 난타 "은달과 평강"
5	서울	구로문화원	신나는 우리가락
6	서울	동대문문화원	아트'라오 '라테'한잔 하시오
7	서울	동작문화원	동작의 은물결 합창단
8	서울	마포문화원	덩더공체조와 우리나라 민속춤 시범 봉사자 양성
9	서울	서초문화원	얼씨구 좋다~! 행복한 인생 속으로~!
10	서울	양천문화원	세대공감전통예술 한마당
11	서울	양천문화원	실버 웃음 운동지도자 과정
12	서울	영등포문화원	신명나는 연극극만들기「신춘향전」
13	서울	용산문화원	용산시니어합창단 동행
14	서울	은평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15	서울	중랑문화원	실버희망합창단
16	부산	강서문화원	어르신문화 활동가 양성
17	부산	금정문화원	금정산 이야기 '금어바 놀자~'
18	부산	금정문화원	금어신화와 금정산 이야기
19	부산	기장문화원	어르신 난타교실
20	부산	남구문화원	퓨전 공연단 <어르신인(詩人)>
21	부산	동구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하모니카 교실
22	부산	동래문화원	청춘을 부르는 은빛 오키리나 교실
23	부산	동래문화원	'얼썬! 은빛 날개를 펼쳐라' 동래학춤 교실
24	부산	부산진문화원	두드림으로 되살리는 청춘 "은빛 난타반"
25	부산	북구문화원	낙동강하구 '구포대리지산밭기' 재현
26	부산	사상문화원	강강술래 대동놀이
27	부산	사하문화원	창극과 우리가락
28	부산	서구문화원	역사와 문화의 만남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29	부산	서구문화원	행복두드림(난타)
30	부산	수영문화원	쉽고 고운 우리자수
31	부산	수영문화원	하모니카 실버예술단
32	부산	영도문화원	절영 수공예공방
33	대구	남구문화원	나도 도예가 "실버 도예 명장"
34	대구	달성문화원	실버시니어매직
35	대구	동구팔공문화원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36	대구	북구문화원	실버 하모니카 교실
37	대구	수성문화원	나도 연극배우다
38	대구	중구문화원	실버, 리듬에 몸을 싣고 (라인댄스)
39	인천	강화문화원	내추릴 슝 아트를 통한 예코 셰어링
40	인천	남구학산문화원	학산실버마당예술단의 송의동 109번지 이야기/마을이야기
41	인천	부평문화원	부평꽃 샘길따라 해설사 양성과정 2기
42	인천	서구문화원	행복을 빛는 실버공예원
43	인천	연수문화원	전통문화Factory
44	인천	중구문화원	인천에 살을 잃었다
45	광주	광산문화원	어르신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지화자'
46	광주	남구문화원	알로하은빛양상블
47	광주	북구문화원	미래가 보이는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48	광주	서구문화원	꿈꾸는 어르신들의 즐거운 마법의 성
49	대전	대덕문화원	내이름은꽃이다.
50	대전	대덕문화원	배고개마을 협동문화예술학교 운영
51	대전	유성문화원	달려라. 실버포장마차-밀반찬 창업
52	대전	중구문화원	실버뮤직스타
53	울산	남구문화원	민화세상 민화이야기
54	울산	중구문화원	똑딱 똑딱 생활(生活) 난타
55	세종	세종문화원	'동동~두두동!' "또 딱, 또그록!" 우리들의 행복 교실
56	경기	가평문화원	잊혀져 가는 내 고향 가평민요 우리소리
57	경기	고양문화원	고양 늘푸른인형극단
58	경기	과천문화원	승승장구 난타
59	경기	광주문화원	이야기 할말 양성 "우리동네 옛날 이야기"
60	경기	구리문화원	건원취타대
61	경기	군포문화원	향토문화해설사 양성으로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62	경기	군포문화원	인성 예절 · 다도지도사 양성
63	경기	김포문화원	나도 국악전문인
64	경기	남양주문화원	은빛 댄스 시니어 예술단
65	경기	동두천문화원	노곤으로여어내는생활의즐거움
66	경기	부천문화원	나도 뮤지컬배우다!
67	경기	수원문화원	우리는 수원문화 사진지킴이
68	경기	안성문화원	안성 두레 그림마당
69	경기	양주문화원	함께 만들고 누리는 도예교실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70	경기	연천문화원	열췁 부채와 장교가 서로 만났네
71	경기	의왕문화원	행복을 전하는 의왕은빛실버악단
72	경기	의정부문화원	은빛인생 2막3장 『꿈을 실은 사진관』
73	경기	이천문화원	구만리틀 풀짚공예교실
74	경기	포천문화원	포천늘푸름은빛합창단
75	경기	하남문화원	훈민정음과 함께살기
76	강원	강릉문화원	하슬라 은빛소리 합창단
77	강원	고성문화원	아리아리예술단장고병창
78	강원	속초문화원	실향민문화 지킴이 '돈돌라이요'
79	강원	양구문화원	어르신들의 늘습나눔
80	강원	양양문화원	양양의 자연경관에 빠진 어르신
81	강원	원주문화원	실버난타
82	강원	인제문화원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무의 숨결(목공예분야)
83	강원	철원문화원	철원실버그린악단(청춘을 돌려다오)문화나눔봉사
84	강원	춘천문화원	카메라에담는인생여정
85	강원	태백문화원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86	강원	횡성문화원	열췁! 우리장단 좋을시고
87	충북	영동문화원	난계의 고장 영동에서 배우는 어르신 풍물 놀이
88	충북	증평문화원	이크! 예크! 불타는 청춘 택견무
89	충북	진천문화원	진달래가 들려주는 우리소리
90	충남	논산문화원	어르신들과 전통놀이에 빠지다
91	충남	논산문화원	전통 색한지에 담긴 어르신공예가의 꿈
92	충남	논산문화원	꽃보다 청춘~ 가드닝 테라피
93	충남	당진문화원	노래와 웃음과 아름다움이 있는 "老소미합창단"
94	충남	보령문화원	은빛 풍물 예술단
95	충남	서산문화원	스산뎨따라
96	충남	서산문화원	한지만들고 멋만드는 공예교실
97	충남	서천문화원	꿈이 펼쳐지는 아코디언
98	충남	예산문화원	아코디언·하모니카 아름다운 청춘하모니
99	충남	온양문화원	2015 아코디언 선율과 함께
100	충남	태안문화원	'오색빛깔 무용단' 행복이야기
101	충남	홍성문화원	어르신마을해설사양성과정
102	강원	인도미술박물관	꿈꾸는 손-거칠어진 손 이전 공예가의 손
103	전북	군산문화원	아름다운 은빛 리듬을 찾아서
104	전북	김제문화원	어르신 이야기꾼 양성
105	전북	남원문화원	해피 실버 존향(한국무용)
106	전북	무주문화원	해피(遊皮)?해피(happy)!
107	전북	무주문화원	여(麗)미(美)다(多)
108	전북	무주문화원	할모니하모니(시즌Ⅱ)
109	전북	부안문화원	나를 배우라 불러 주시오
110	전북	순창문화원	옥천고를 대취타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11	전북	완주문화원	화산별곡
112	전북	완주문화원	신지리 마을 소리제_판소리 하는 신지리 여인들
113	전북	완주문화원	완주골 남성실버밴드 '이팔청춘'
114	전북	익산문화원	은빛 청춘들의 푸른교실(하모니카 연주)
115	전북	임실문화원	꽃보다 청춘, 후올라~후올라~
116	전북	장수문화원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
117	전북	전주문화원	전주 산성유적 문화 해설사
118	전북	정읍문화원	정읍의 풍류 정가(正歌) 산책
119	전남	고흥문화원	민요창극단 "뚝뚝뚝뚝방망이효행가"
120	전남	고흥문화원	노래와 춤으로 되살리는 청춘(라인 댄스 및 댄스 스포츠 )
121	전남	고흥문화원	생활 한문과 옛 서당 문화 재현(읽고, 쓰고, 짓고)
122	전남	곡성문화원	제2의 푸르름 "청춘예찬 공예-꽃밭에서"
123	전남	광양문화원	광양문화원 시니어 기악단 육성 "아빠의 청춘"
124	전남	담양문화원	신통!방통!대통! 대나무난타
125	전남	담양문화원	천년대숲학교
126	전남	목포문화원	실버신버람북놀이단 양성
127	전남	무안문화원	어르신 인문학규레이터 양성
128	전남	보성문화원	노산마을 전통공예교실
129	전남	보성문화원	산양 창극단 (소리, 멋과흥에 취하다)
130	전남	신안문화원	밤달애 문화대학
131	전남	여수문화원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 봉사단 교육
132	전남	영암문화원	영암아리랑 신버람 예술단
133	전남	완도문화원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134	전남	장성문화원	선비교을 어르신문화 해설가 양성교육
135	전남	진도문화원	2015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 사업
136	전남	함평문화원	함평, 고향스토리텔러
137	전남	해남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연극교실 '표현하는 노년은 아름다워'
138	경북	경산문화원	얼썩~ 짚썩~ 니캉내캉 악극으로 단디 놀아 볼세!
139	경북	고령문화원	어르신 가아금병창 연주단
140	경북	구미문화원	장천풍물보전어르신풍물단
141	경북	구미문화원	정수실버합창단
142	경북	군위문화원	내 나이가 어때서 손풍금 연주단
143	경북	문경문화원	문경새재아리랑마을 만들기
144	경북	봉화문화원	야생화 꽃피는 신나는 노래교실
145	경북	상주문화원	어르신활동가 양성
146	경북	영덕문화원	퇴계선생간강법 활인심방 따라하기
147	경북	영주문화원	난타교실 "두드려라 다시돌아온 내청춘 2"
148	경북	영주문화원	"손끝으로감성을깨우다"아름다운한글캘리그래피
149	경북	울진문화원	울진드림스공연단
150	경북	의성문화원	은빛사랑 연주단
151	경북	청도문화원	속 시원한 난타, 아가지기 사물놀이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52	경북	칠곡문화원	여우골 각시 우는 날 (칠곡민담 연극)
153	경북	포항문화원	국악극단 '영일만 시나위'
154	경남	거창문화원	실버청춘연극단 양성 및 공연
155	경남	거창문화원	댄스스포츠와 함께하는 실버의 힘 - 아자
156	경남	고성문화원	우리 차로 우리 문화 되살리기 운동
157	경남	고성문화원	고성의 C&C를 찾아가는 여정-고성의 문화Culture와 인문Civilization을 찾아가는 여정
158	경남	김해문화원	2015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159	경남	마산문화원	마산실버판소리공연단
160	경남	사천문화원	남양 행진곡
161	경남	산청문화원	산음골연극단(마당극)
162	경남	양산문화원	어르신풍물놀이반
163	경남	진주문화원	어르신문화대학
164	경남	진해문화원	"노래사랑 기쁨 한아름" 벗소리합창단
165	경남	창녕문화원	100세시대 건강이최고 약초와 함께 행복만들기(약초)
166	경남	창원문화원	우리고장 노래 배우기! 화산합창단!
167	경남	통영문화원	대나무의 외출 (통영대밭/통영부채 제작과정)
168	경남	하동문화원	승무복 가락으로 통하는 우리전통열 계승
169	경남	함안문화원	치넬벳사공노래교실
170	경남	합천문화원	서각으로 천년의 지혜를 만나다!
171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광진실버이야기교실(노인은 위대한 스토리텔러다)
172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어르신문화학교)
173	서울	구립중산정보도서관	옛이야기 들려주는 우리 동네 어르신-스토리텔링 지도사 양성 과정
174	서울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퀵트공예)
175	서울	금천호암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신나는 소리-두드림 문화학교
176	서울	북촌중앙문화박물관	어르신민화학교
177	서울	(주)해라	2015어르신대상 두드리고 열리고
178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일필휘지(一筆揮之) 어르신 서예반 강사 양성 프로그램
179	부산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실버난타학교
180	대구	자연염색박물관	행복한 우리 동네! 우리네 살림살이!
181	광주	의재미술관	수묵화/서예 문화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182	울산	울산해양박물관	바다의 향수(享受)를 찾아서
183	경기	군포시노인복지관	꿈꾸는 청춘, 연극교실
184	경기	남양주역사박물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문화해설사 양성)
185	경기	통진도서관	신바람 놀이인문학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186	강원	국제현대미술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187	강원	속초시립박물관	아바이 어마이 박물관 미니공방
188	강원	한국시집박물관	은나라, 신나라 문예학당
189	전북	삼천문화의집	용기들 몽구려!!
190	전북	양지노인복지관	애기똥풀실버인형극 문화활동가 양성
191	전북	우이문화의집	어르신 문화공동체 실버극단 '봄날'- "내연기가 어때서!"
192	전북	전북대학교박물관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사업(어르신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93	전북	효자문화의집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Book-Book'
194	전남	곡성죽동농악전수관	사대문 지신밧기 활성화를 위한 신명나는 풍물배움터
195	전남	다산미술관	어르신문화활동기양성-다산리, 오색빛깔로 물들다
196	경북	신평미술관	신평리 Artist 할매가 떴다!
197	경남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및 문화관광도우미 양성교육
198	경남	클레이아트김해미술관	세라이프-도자가 담긴 삶
199	경기	평택농악보존회	우리마을 문화학당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어르신 문화활동가들이 지역의 문화소외지역, 학교, 문화행사 등에서 펼치는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활동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	서울	관악문화원	찾아가는 은빛무용단 순회공연
2	서울	광진문화원	광진나루합창단
3	서울	동대문문화원	왕언니클럽의 행복콘서트
4	서울	성북문화원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흥낙樂
5	서울	송파문화원	찾아가는 예술체험
6	서울	영등포문화원	신명나는 국악한마당
7	서울	중랑문화원	도담도담 어르신 인형극단
8	부산	강서문화원	푸를청♡봄춘 '靑春' 색소폰봉사단 / 거리의 향기 애코디언 봉사단
9	부산	남구문화원	오륙도문화봉사단
10	부산	영도문화원	영도할매 난타 공연봉사단
11	대구	동구팔공문화원	소리지음심포니
12	대구	서구문화원	날뫼복춤 어르신 풍물단
13	인천	강화문화원	Fun-Fun Play in Ganghwa
14	인천	계양문화원	찾아가는 무지개 봉사단
15	인천	남동문화원	한울림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만남
16	광주	광산문화원	광산문화누리봉사단
17	광주	광산문화원	문화원친구들의나눔하모니
18	광주	남구문화원	빛고을은빛하모니문화나눔봉사단
19	광주	동구문화원	"빛고을동구" 문화나눔봉사단
20	광주	북구문화원	행복을 부르는 실버문화나눔 공연단
21	광주	서구문화원	늘 푸른 앙상블 "사랑, 추억, 행복의 애인이 되다"
22	대전	동구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23	대전	유성문화원	Do-Dream 실버 예술단
24	대전	중구문화원	은빛소리샘연주여행
25	울산	남구문화원	타악퍼포먼스 환상의 두드림! 매직난타
26	울산	동구문화원	2015 찾아가는 위문공연 활동
27	울산	중구문화원	배움의 기쁨에서 나눔의 행복으로 "넝 덕 쿵 우리기락 좋을씨구"
28	세종	세종문화원	출판이 되어 내 마음에 불을 지피다.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29	경기	가평문화원	푸른연인문화나눔봉사단
30	경기	과천문화원	사랑매듭나누미
31	경기	구리문화원	어르신전래놀이나눔봉사단
32	경기	동두천문화원	짱, 짱이야 실버색소폰 악극단과 함께하는 행복누리 콘서트
33	경기	시흥문화원	잉벌로 밴드
34	경기	안산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35	경기	양평문화원	문화재비누만들기
36	경기	용인문화원	실버합창단! 실버음악여행
37	경기	의정부문화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출동123세대 한미음밴드>
38	경기	파주문화원	「파주어사」
39	경기	평택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장승과 솥대'
40	경기	포천문화원	포천사랑문화나눔공연
41	경기	하남문화원	어르신 뜨개질 봉사단-꽃보다 뜨개질!!
42	경기	화성문화원	얼썩! 우리가락 한마당
43	경기	화성문화원	화성"춤"클럽
44	강원	강릉문화원	히슬라 윈드 오케스트라
45	강원	고성문화원	아리아리 문화나눔 봉사단
46	강원	속초문화원	마음으로재능을나누는'실악문화나눔친구들'
47	강원	양구문화원	옥피리 하모니카 봉사단
48	강원	정선문화원	고은님들의 놀이마당 "양반전"
49	강원	평창문화원	아라리 농악봉사단
50	충북	보은문화원	"한국의 얼" 봉사단
51	충북	청원문화원	청원갯바치
52	충북	청주문화원	찾상머리 예절교육
53	충남	공주문화원	*전통문화공연단논두렁발두렁(함께해요우리문화)
54	충남	청양문화원	춤따라 멋따라 기쁨을 나눕니다
55	충남	홍성문화원	2015홍성군문화나눔봉사단
56	전북	고창문화원	동행! 어르신들의 눈부신 예술이야기
57	전북	김제문화원	마술을 부리는 음악 유랑단
58	전북	부안문화원	BuAn Harmonix "Art Story"
59	전북	순창문화원	"나이야 가라"댄스스포츠
60	전북	임실문화원	사랑과 건강을 그대와..
61	전북	전주문화원	은빛사랑 날개를 펴다
62	전북	정읍문화원	샘골은빛종합연예단의 희망나눔공연
63	전남	강진문화원	'퓨전 각설이 풍물때'라고 들어는 봤남?
64	전남	곡성문화원	할머니 인형극단 "민들레"
65	전남	신안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66	전남	무안문화원	마을놀이 찾아나서는 시니어 풍물때 봉사단
67	전남	영광문화원	청포장 꽃바람에 금박당기 너울너울
68	전남	영암문화원	뽕찬 풍물때 봉사단
69	전남	장흥문화원	오늘같이 좋은날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70	전남	진도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71	전남	화순문화원	나누리 문화 사업단(흥과 멋이 깃든 무대)
72	경북	김천문화원	추억찾아 떠나는 사랑방 공연
73	경북	성주문화원	별고를 문화나눔 봉사단
74	경북	안동문화원	우리네인생 내방가사로 풀어보세(내방가사나눔이공연단)
75	경북	영천문화원	스타영천 문화봉사단
76	경북	예천문화원	빛나는 청춘 관악단
77	경남	거제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78	경남	남해문화원	다담이돌 남해섬 타령
79	경남	마산문화원	마산실버우리소리공연봉사단
80	경남	산청문화원	산청할머니이야기말풍선(인형극)
81	경남	의령문화원	찾아가는 한지공예 어르신 봉사단
82	경남	진주문화원	민요교실(국악한마당/아리랑콘텐츠)
83	경남	창녕문화원	비사벌의 문화예술! 신바람청춘-난타.
84	경남	하동문화원	9988하동포구 무용단
85	경남	함안문화원	희망과기쁨 함안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86	경남	함양문화원	다별골 어르신, 나눔애 물들고 행복애 물들다II
87	경남	합천문화원	해피 아라리!
88	제주	서귀포문화원	'제라진' 서귀포문화봉사단
89	서울	은평구립	얼썬!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
90	인천	불광노인복지관	경로당 유랑 콘서트 "신명의 소리여행"
91	광주	전통연희단잔치마당	음악으로 하나되는 우리는 문화전령사!
92	경기	각화문화의집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원더풀봉사단'
93	경기	군포시노인복지관	두리동실(두마음이 뭉쳐 실천하는 봉사-경기민요)
94	경기	봉담문화의집	뇌건강 증진 프로젝트 - '뜨고, 붙이고, 께메고'
95	경기	설미재미술관	"세대공감 사랑과 효" 큐레이터
96	강원	아해박물관	폐광지역 어르신 장수사진 제작
97	충북	영월	문화로 함께 그리는 꿈-흥덕 생활 문화 봉사단
98	충남	미디어기자박물관	몸도 맘도 낭랑18세 봉사단
99	전북	흥덕문화의집	꼬까나비 문화공연 봉사단
100	전북	추부문화의집	할머니 무릎베개 이야기 봉사단
101	전북	양지노인복지관	어울림 봉사대 '황혼의 여정, 나빌레라!'
102	전북	완주문화의집	자·스·민 예술단(자연을 사랑해서 스스로 모인 시민)
103	경북	진북문화의집	기계아리랑
104	경북	효자문화의집	구미문화봉사단
105	서울	기계문화의집	광진 실버이야기 봉사단

:: 어르신문화동아리 ; 문화원 및 문화시설의 소규모 어르신문화동아리의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	서울	동작문화원	동작의 미술사랑
2	서울	성북문화원	국악 합창 동아리-성북세상 소리단
3	서울	송파문화원	어르신 동아리 Hands Art
4	서울	용산문화원	용산가야금연주동아리-연풍
5	서울	은평문화원	문화동아리 "글, 그림, 소리, 몸짓의 어우림 콘서트"
6	서울	중구문화원	청춘미술교실
7	부산	영도문화원	찾아가는 절영무용단
8	인천	남구학산문화원	동네마다 '마을 하품학교'
9	인천	부평문화원	행복한 실버극단 은빛여울
10	인천	서구문화원	서구청춘합창단 "갈채"-갈채로 다시 날기
11	인천	연수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전통문화활동단
12	광주	광산문화원	어르신동아리-나도화가다展
13	대전	대덕문화원	대덕실버극단(다솜바리) 동아리 운영
14	대전	동구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15	대전	서구문화원	우리소리 전하는 은빛 민요합창단
16	울산	남구문화원	동심의 세계로 처용목공예 전통연 봉사단
17	경기	가평문화원	쌍쌍 실버무용 동아리
18	경기	김포문화원	경기민요 실버합창단
19	경기	안산문화원	천하태평 실버밴드 문화동아리
20	경기	안양문화원	창극으로 만나는 전래동화
21	경기	양평문화원	힐링꽃누르미
22	경기	의정부문화원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예술단 시즌4
23	경기	이천문화원	구만리뜰 꽃청춘
24	경기	이천문화원	신명 청년풍물패
25	경기	이천문화원	자연을 머금 茶
26	경기	이천문화원	한일문화다이스키
27	경기	포천문화원	어르신 한자동아리(서당체합)
28	경기	하남문화원	어르신 노래교실 동아리-다같이 불러요. 로맨틱 성공적
29	경기	화성문화원	화성어르신 빛그림동아리
30	강원	영월문화원	붓으로 여는 세상
31	강원	원주문화원	실버오카리나 동아리
32	강원	인제문화원	북한강 물결따라 소리따라
33	강원	평창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34	강원	홍천문화원	우리가락 얼썩~
35	충북	보은문화원	문화사랑 묵연회(墨緣會)
36	충북	증평문화원	증평실버아생화연구회
37	충남	서천문화원	시조 및 판소리 동아리
38	충남	온양문화원	은빛시니어봉사단
39	충남	청양문화원	얼썩 우리가락 좋을씨구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40	충남	홍성문화원	아코디언 앙상블
41	전북	부안문화원	할머니 반질고리
42	전북	익산문화원	판열GO두드리鼗(농악)
43	전북	전주문화원	발리듬 사랑의 멜로디~
44	전북	정읍문화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르신 다도교실
45	전남	고흥문화원	관현악 동아리 교실
46	전남	고흥문화원	어르신 서예, 문인화 동아리
47	전남	나주문화원	세월의 군산을 깎아 곱게 채색하여
48	전남	목포문화원	우리춤이 최고여!
49	전남	영광문화원	어르신 시문학 꿈드림 동아리
50	전남	장성문화원	품생품사 어르신 사진반
51	전남	진도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52	전남	해남문화원	그림으로 돌아보세
53	전남	화순문화원	어르신 문화동아리-실버댄스 군내 면 복지관 순회공연
54	경북	안동문화원	예(禮)의 소리 창출 문화를 찾아서
55	경북	영천문화원	신바람 아코디언교실
56	경북	칠곡문화원	제3회 풍악을 올려보자
57	경북	포항문화원	포항문화원 '두레단 답사기'발간
58	경남	김해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59	경남	의령문화원	의병풍물단 동아리
60	경남	진해문화원	시조사랑 노년사랑
61	경남	창원문화원	우리 함께! 내일은 희망!
62	경남	통영문화원	대한민국만세!, 그날의 합성을 찾아서
63	제주	서귀포문화원	숨비소리 서귀포문화봉사단
64	제주	제주문화원	전통생활문화 지도만들기
65	서울	서울시 중구장애인복지관	향-만방(향기를 만들어 내는 공방)
66	서울	정립회관	정립 서예 동아리
67	인천	추억극장 미림	어르신문화동아리
68	경기	군포시노인복지관	춤으로 제2의 인생을 만나다 '셸 위 댄스(Shell we dance)?'
69	경기	군포시노인복지관	시니어 예술 Up! 희망 Jump!
70	경기	두루뫼사료관	어르신문화동아리(두루뫼사랑방)
71	강원	판부문화의집	"낭랑 18세 민요동아리"
72	강원	횡성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연극을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2막 1장'
73	충북	증평문화의집	다양 증평을 적시다
74	전북	안골노인복지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하모소리 공연단"
75	전북	양지노인복지관	준비하는 노년! 희망양지 문화동아리
76	전북	완주문화의집	신비의 오카리나 동아리, 완주 소리새

:: 어르신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문화동아리의 네트워크 확산 지원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	인천	계양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2	광주	동구문화원	반짝반짝 은빛클럽 "다시 청춘이다"
3	경기	안성문화원	안성맞춤 실버 동아리 봉사단
4	강원	고성문화원	붓사랑
5	충북	청주문화원	왕년에 한가락 예술단
6	충남	천안동남구문화원	천안삼거리 知食通 동아리 포럼
7	전북	익산문화원	음(音) 주(奏) 가(歌) 무(舞)에 취하여...
8	전남	보성문화원	다향문화동아리
9	경북	김천문화원	어르신문화네트워크 구축
10	경남	함양문화원	문화가 쓰담쓰담, 행복이 소복소복 빛나는 골드-에이지
11	경남	산청문화원	힐링이 있는 봉사단 '에나'
12	경기	잔점문화의 집	노(老) : NO
13	전북	삼천문화의집	우리동네 행복택배 예술단

:: 어르신문화일자리 ;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을 지역에서 사회자본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지원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	광주	동구문화원	골든 에이지 강사풀제 - 우리는 은빛선생님
2	경기	고양문화원	고양전래놀이지도단
3	경기	성남문화원	지승공예
4	강원	정선문화원	어르신들이 만드는 "나룻배와 주막이 있는 문화"
5	충남	서산문화원	서산향토사료관 문화사절단
6	전남	화순문화원	13세대강사파견사업(묵은 뿌리가 새 뿌리를 키운다)
7	전남	보성문화원	늘푸른 풍류공연단
8	전남	강진문화원	한지랑 은빛행복 더하기
9	전남	목포문화원	실버국악예술단
10	경북	안동문화원	만드는기쁨 안동한지공예
11	경남	남해문화원	나는 바리스타다
12	경남	창녕문화원	어르신건강최고, 행복최고, 전통춤 지도강사 양성
13	서울	은평구립도서관	어르신 행복양상블

:: 어르신문화콘텐츠개발 ; 어르신의 관점으로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 및 개발하여, 향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No	지역	문화시설	사업명
1	광주	동구문화원	어르신들이 만드는 이야기골목
2	경기	시흥문화원	시흥 우리마을 만화영화 공작소
3	경기	이천문화원	내가 인문학이다 - 어르신의 '이야기를 풀다, 세상을 담다'
4	충남	홍성문화원	하산마을 산신제 축제
5	전북	고창문화원	무장칠거리당산용당기놀이 재연
6	전남	영광문화원	효동의 장릉을 열다
7	전남	보성문화원	오봉리 구들장 이야기
8	경남	남해문화원	할매 할배의 舊닥다리 남해 추억여행
9	경남	남해문화원	남해 포토에세이집(1900~1970)
10	경남	사천문화원	꽃가마 타고 피안성경 가자!
11	제주	서귀포문화원	덕수리 마을밥상, 코시롱 돌코름 뽕꼬랑
12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3	광주	농성문화의 집	마을장인 발굴 프로젝트 노익장(耨)-전통 손맛을 찾다
14	전북	완주문화의집	찾았다~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15	경북	영담한지미술관	어르신과 함께하는 추억그리기

:: 기획자교류지원사업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성과제고를 위해 권역별 기획자간 교류, 멘토링, 워크숍, 포럼 등을 지원

No	지역	단체명	사업명
1	서울	서울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2	대구	대구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3	인천	인천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4	광주	광주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5	대전	대전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6	울산	울산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7	경기	경기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8	강원	강원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9	충남	충남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0	전북	전북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1	전남	전남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2	경북	경북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3	경남	경남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4	제주	제주문화원연합회	기획자교류지원사업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례집

## 문화로 물들다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인 | 이경동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12층

전 화 | 02-704-4311

팩 스 | 02-704-2377

홈페이지 | [www.kccf.or.kr](http://www.kccf.or.kr)

디자인 | 디자인 그리고

©2015 · 한국문화원연합회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으며, 내용의 전재·복사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